

종로에 세운 포교당에 ‘보천교’라는 명칭을 달았는데, 이때부터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보천교는 1920년에 교단조직을 60방주로 재편하고 557,700명에 달하는 간부를 임명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울진지역의 보천교는 1917년 차경석이 방주들을 모아 회의를 한 뒤 교세 확장으로 일제 탄압이 심해지자 고향을 떠나 다시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으로 포교활동에 나섰다. 1918년 포교 활동 중 국권회복을 내걸고 전라북도, 제주도에서 일제와 무장투쟁할 것을 연설하였다. 이때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 김연일 등과 항일운동을 모의하였다. 또한 1919년 7월 차경석이 울진군 서면 전천동(前川洞)에서 60방주를 조직하면서, 울진지역은 초기 보천교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 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백서에 따르면 보천교도가 6백만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천교의 교세 확장은 1930년대까지 울진지역에서 왕성하게 교세를 확산한 것과 무관치 않다. 울진군지에 따르면 보천교도들은 상투차림에 큰 관탕(冠宕)을 착용했다고 한다. 당시 보천교에 관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후천개벽을 기본교리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염원하는 것을 주된 교리체계로 삼았으며, 울진지역의 원남면 일대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교세를 확산시켜 왔다고 전한다.

그러나 1936년 차경석이 죽고 일제의 ‘유사종교해산령’으로 인해 보천교는 해체되었다. 8·15해방 후 다시 교단이 조직되었지만 과거의 교세를 회복하지 못했고 신파와 구파로 분열되었다. 오늘날 울진지역에서는 과거에 왕성했던 보천교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김병희

## 제3절 불교

### 1. 울진지역의 불교 전래

#### 1) 울진군의 형세와 내력

울진군은 현재 경상북도의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봉화군과 영양군, 남쪽은 영덕군, 북쪽은 강원도 삼척군과 접하고 있다. 울진군은 2읍 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진군 10개 읍면의 위치를 보면, 내륙지인 금강송면과 온정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해안을 접하고 있다. 제일 북쪽에서부터 북면·죽변면·울진읍·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평해읍·후포면이 위치하고 있다.

울진군의 서부는 태백산맥의 정상부에 속하여 백암산·금장산·통고산·오미산·삿갓재·진조산·응봉산 등의 높은 산과 진산인 안일왕산(安逸王山)이 솟아 있다. 서부의 고산지대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차 낮아지는 동저서고 지형이다. 따라서 해안지대는 해발 2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며, 하천은 북부에서 북면 주인리·부구리를 지나 중앙을 가로지르는 부구천(富邱川)[일명 흥부천]과 북면 남부와 울진읍 정림리·호월리를 지나 남동류하는 남대천(南大川)[일명 울진남대천·두천천·읍내천]이 동쪽으로 흘러내려 동해로 흘러든다.

그리고 왕피천(王避川)은 통고산 서쪽에서 발원해 금강송면 남부를 동류하다가,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와 오기리에서 시작되어 북동류하는 장수포천(長水浦川)을 합류한다. 그 뒤 북류해 근남면을 관류하다가, 노음리 부근에서 매화면 남부에서 시작되어 길곡리·갈면리·기양리·매화리를 거쳐 북류하는 매화천(梅花川)과 금강송면의 북부산지에서 발원해 금강송면을 동류해 울진읍 남부와 근남면 북부를 동류하는 광천(光川)을 합류한 뒤 동해로 흘러든다. 남부에서는 기성면 중앙을 가로질러 동류하는 정명천(正明川)과 소태천(蘇台川) 등의 지류를 합류한다. 온정면 서부와 평해읍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일명 평해남대천·평해천] 등이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흘러든다. 이들 하천의 중류와 하류에 발달된 소규모의 곡저 평야에는 취락과 농경지가 집중되어 있다.

울진지역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청동기시대 아래 활발한 사회 분화가 일어나 하나의 소국(小國)이 형성되었는데 진한의 우중국(優中國)이 이곳에 비정되고 있다. 울진지역은 최근까지 울진과 평해 두 지역으로 나뉘어 발전해 왔다. 울진은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이었다가 신라에 편입되어 757년(경덕왕 16) 울진군으로 개명되었다. 평해는 고구려의 근을어(斤乙於)로 신라에 병합되었는데, 울진군과 함께 명주(溟州) [지금의 강릉]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현으로 강등되어 현령이 파견되었고, 1007년(목종 10)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 고현성이 축조되고 군대가 주둔하였다. 평해는 1018년(현종 9) 지방제도 개편시 예주(禮州)[지금의 영해]의 속현이 되었다가 1172년(명종 2) 감무가 임명되었다. 그 뒤 충렬왕 때에는 이곳 출신 황서(黃瑞)가 왕을 호종해 원나라에 다녀왔으므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었다. 이 두 군현은 일찍부터 여진의 침입이 잦아 국방상의 요새로서 국가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는 왜구의 빈번한 노략 때문에 백성들이 흘어졌다. 이때 울진현령 어세린(於世麟), 평해군수 김을권(金乙權)이 각기 울진현성·평해읍성을 쌓아 왜구를 막고 백성을 안주시켜 산업을 융성하게 했다고 한다. 고려 초 아래 울릉도를 울진의 관할행정구역으로 포괄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울진과 평해 두 지역은 읍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강원도 삼척도호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1466년(세조 12) 진관체제의 확립에 따라 강릉진관에 이관되었고, 울진포(蔚珍浦)와 월송포(越松浦)에 수군만호(水軍萬戶)가 배치되었다. 이 지역은 물고기와 소금이 많

이 산출되었는데 경상도 북부와 접경해 농산물이 풍부한 영해부와 교역이 활발하였다. 『세종 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당시의 호구는 울진현이 270호 1,483인, 평해군이 247호 911인이었으며, 토지는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반반이며 주민은 무예를 승상하였다고 한다.

1895년 갑오개혁에 의해 소지역주의가 채택되어 23부제가 실시되자, 각기 울진군·평해군이 되어 강릉부에 속했다가 1896년 13도제 실시에 따라 강원도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평해군은 폐지되고 그에 속했던 8개 면은 울진군에 편입되어 울진군 7개 면과 합해 오늘날의 울진군으로서 8개 면이 되었다.

이 시기에 근대적 교육운동이 일어나자 울진지역에서도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또 항일의병투쟁이 전개되자 울진지역주민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 와중에 1907년에는 일본 군에 의해 군청이 완전히 불타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3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매화·홍부 장날을 기해 수백 명이 모여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관내 행정구역의 개편은 거의 없었으나, 1953년에 평해면 후포출장소와 울진면 죽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63년 울진군이 강원도 관할에서 경상북도로 이관되고, 온정면 본신리가 영양군 수비면으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1979년 5월 1일 울진면이, 1980년 12월 1일에는 평해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 서면 전곡리 일부가 봉화군 석포면으로 편입되었다. 1986년 4월 1일 울진읍 죽변출장소가 죽변면으로, 평해읍 후포출장소가 후포면으로 각각 승격되었다. 1994년 서면 왕피리 일부가 영양군 수비면에 편입되었다. 2015년 4월 서면이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이 매화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sup>221</sup>

## 2) 불교 전래

불교라는 말은 석가모니인 부처가 설한 교법이라는 뜻과 부처가 되기 위한 교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교·이슬람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인 불교는 석가모니 생전에 이미 교단이 조직되어 포교가 시작되었으나 교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죽은 이후이다. 기원 전후로 인도와 스리랑카 등지로 전파되었으며, 서역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시기는 삼국시대이다. 당시 고구려가 받아들인 불교는 주로 전진(前秦)을 비롯한 북방 중국의 불교였으며, 백제가 받아들인 불교는 주로 동진(東晉)을 비롯한 중국 남방의 불교였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처음에는 고구려로부터, 그 이후로는 백제와 중국의 남조, 수나라, 당나라 등지에서도 전래되었다. 이렇게 수용된 불교는 한국의 고대 신앙이나 고유 습속 등 전래의 문화와 잘 융화되어 민족문화의 훌륭한 모체 역할을

221. 심현용, 2016,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으로 본 울진의 연혁」『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성립문화재 연구원, 239~307쪽 : 한국학 종양연구원, 「울진의 역사」,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6일

담당하였다.<sup>222</sup>

울진지역의 불교도 토속 신앙과 자연스럽게 습합 과정을 거쳐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고 나서도 수도인 경주와 먼 울진지역에는 아직 불교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토속 신앙이 긴 기간에 걸쳐 유지되었다. 울진지역에는 늦어도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이르러 신문왕의 아들인 보천태자에 의해 불교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民間에까지 깊숙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청암사가 창건되는 9세기 후반 전후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탑상4 「대산오만진신」과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에 의하면, 울진의 장천굴에 2천 년 동안이나 굴신이 있었는데, 보천태자가 와서 수구다라니를 염송하기 전까지는 부처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울진지역에서 불교라는 종교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보천태자에 의해 전해져 보살계를 받고 불교에 귀의했음을 의미한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2 잡지, 제사조에 의하면 우진야군[지금의 울진]에 악발(岳髮)[발악(髮岳)]의 산천 신앙이 있었으며, 이 산천 신앙은 결국 신라의 국가적인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에 소사로 편제되어 흡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신라가 통일 이후 제의체계를 정비하면서 각 지방의 산들 중에서 중요한 산을 제의체계 내에 편제한 것은 지방민을 위무함과 동시에 그 방면의 정치 세력을 일정하게 우대하여 중앙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신라는 명산대천제에 포함된 산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다. 따라서 소사에 속한 산천의 위상은 여타 산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라 정부가 악발을 소사체계 내에 편제한 것은 울진지역을 그만큼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223</sup>

이러한 경향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후 각 지역의 신앙 체계와 토착 세력을 왕실 및 중앙 세력 중심으로 재편제하고 체계화한 데서 나온 것이다. 즉, 굴신이 불교에 귀의한 후 굴의 형체가 없어져버렸다는 것과 악발 신앙이 국가적인 제사에 선정되어 국가제도에 흡수되는 것은 울진지역의 토착 신앙 체계가 불교 신앙 체계로 완전히 흡수되어 토착 신앙을 숭앙하는 재지 세력들이 해체되고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울진지역의 토착 신앙이 그동안 강인하게 유지되어왔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울진지역에 불교가 유입되기 전에는 토속 신앙인 굴신과 산천신이 강하게 유지되어오다가,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중앙 세력에 의해 불교 신앙이 전파됨에 따라 토속 신앙은 서서히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sup>224</sup>

현재의 울진군 지역은 삼국시대 고구려의 영토였다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병합 초기 울

222. 한국학중앙연구원, 「울진의 불교」,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5일

223. 노중국, 2016, 「지정학적 위치로 본 고대의 울진」,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성립문화재연구원, 25쪽

224. 한국학중앙연구원, 「울진의 불교」,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5일

진지역민들은 신라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524년(법흥왕 11)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의하면, 당시 신라가 영토확장으로 동해안 지역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곳 거벌모라(居伐牟羅)[봉평]지역을 새로 편입함에 따라 주민들의 신라 병합 반대를 위한 항쟁사태가 일어났다. 신라가 이를 응징하기 위해 육부회의(六部會議)를 열고 대인을 파견하여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 및 신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통일 이후 넓어진 영토와 중국과의 외교, 문물 교류 등을 위해 서울인 경주로부터 북쪽 지방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의 확보 및 유지책의 일환으로 영주에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였다. 문무왕 당시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한 것은 교통로 확보는 물론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영월에 설치한 군사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위로와 통제를 위해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 즉 부석사를 창건하고 고명한 중 의상의 설법 등으로 지방민을 위로하면서 통제하려는 정치·군사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울진지역의 반신라적 저항세력을 통제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불영사(佛影寺)를 창건한 것은 아닐지 짐작될 뿐이다. 사찰 창건이 당시의 정치 군사적 요구와 서로 관련이 있음을 틀림없다.

울진지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신라가 이 지역을 관할했던 삼국시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적기에 의하면 현재의 불영사가 651년(선덕여왕 5)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기록되어 있으며, 영주 부석사 창건 설화에 등장하는 선묘(善妙)가 울진 불영사 창건 설화에도 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두 사찰의 창건 설화가 일맥상통하고 있다.

당나라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의상대사가 화엄법회를 열고 한참 교화에 힘쓸 때였다. 어느 날 노인과 8명의 동자가 의상대사를 찾아와 자기들은 동해를 수호하는 호법신장(護法神將)인데 이제 인연이 다하여 이곳을 떠나면서 우리가 살아온 곳에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인연 닿는 스님을 못 만나다가 이제야 만나게 되었으니, 그곳에 도량을 세워 줄 것을 의상대사께 간청한다. 하루는 포항에 도착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용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했다. 그리하여 울진에 닿았는데, 그 용은 사라지고 울진 앞바다에서 오색구름이 가득 피어나더니 다른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의상대사를 영접했다. 바로 선묘 용이었다.

문헌상의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구비에 의하면, 불영사와 더불어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 수진사와 광흥사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폐사된 사찰 가운데는 대흥사·청암사·성류사·천량암·대천사·신흥사 등도 이 시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영사 창건 이후 울진지역에는 사찰 창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사찰 창건과 관련하여 당대의 고승이 등장하는데,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사찰은 불영사·대흥사·신흥사이다. 울진지역의 사찰 창건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의상대사의 관련설을 지니고 있다. 당시 지리지나 읍지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사찰 가운데 조

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사찰 이름을 유지해온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수진사와 광흥사는 한때 폐사되었다가 재창건한 사찰이므로 진정한 전통사찰은 불영사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울진지역에서 최초로 창건된 사찰인 불영사는 16세기 전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울진현 불우조에는 ‘불귀사(佛歸寺)’로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진현 불우조에 ‘불귀사는 백암산에 있는데 신라 중 의상이 창건하였다’<sup>225</sup>고 기록하고 있다. 불영사의 명칭이 처음에는 ‘천축산 불영사’라 하였으나 나중에는 ‘백암산(백두산) 불귀사’라고도<sup>226</sup> 불렸다. 따라서 불영사는 ‘불귀사’, ‘불영암’ 등으로 기록되어 왔다.

그러나 울진지역에 대한 당시의 불교 관련 발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라에서 처음 불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통일신라 이전까지의 유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후반의 울진지역의 불교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도 전무한 실정이다. 울진지역에서 확인된 가장 빠른 불교 관련 유물은 7세기 후반의 인화문 토기와 9세기 후반의 구산리 삼층석탑이다. 특히, 청암사지에서 출토된 7세기 후반의 인화문 토기는 보천태자가 울진지역에 와서 장천굴의 신을 불교에 귀의시키는 시기와 비슷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더욱 높여준다. 인화문 토기와 구산리 삼층석탑은 울진에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불교 관련 유물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이 지역의 불교 석조물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유물은 신라 석탑의 전형이나 양식을 잘 계승한 9세기 후반의 청암사지 삼층석탑 1기뿐이다. 일반적으로 석탑은 절이 창건될 때 만들어지므로 청암사지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가 바로 청암사의 창건 시기를 알려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울진지역에 불교가 폭넓게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청암사가 창건되었던 9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진지역에 남아 있는 석조물의 대부분이 고려시대인 것으로 보아 사찰 창건이 고려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울진지역의 불교도 고려시대에 가장 활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석조물의 규모가 고려 중기 이후에는 작아지고 양식도 퇴보하는 것으로 보아 울진지역의 불교는 고려 전기에는 활발했으나 고려 중기 이후로는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면 거의 부도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아 울진지역의 불교는 새로운 양식의 석조물 창안이나 발전 없이 승유억불 정책에 밀려 거의 쇠퇴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227</sup>

울진지역의 불교는 산천 신앙이나 굴신 신앙과 같은 전통적인 토속 신앙에 불교가 습합되는 과정을 통해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전래 이후 사적기나 각종 지리지 및 읍지에

225. 이행 외,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5(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588쪽

226. 심현용, 2014, 「울진 천축산 불영사의 창건과 응진전」『박물관지』20, 강원대학교종양박물관, 53쪽

227. 한국학중앙연구원, 「울진의 불교」,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5일

는 불영사가 울진지역에서 가장 먼저 7세기에 창건된 사찰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불영사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조사나 유적 유물의 분석에 의한 창건 시기는 고려 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청암사지에서 수습된 인화문 토기는 울진지역 불교 전래시기를 불영사 창건시기와 동시대인 7세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 2. 울진지역 불교의 역사적 추이

### 1) 신라시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민간에서는 천신, 일월신, 산신, 해신 등의 여러 신을 모시는 샤머니즘과 점술이 널리 퍼져 있었다. 왕실이나 지배 부족들은 조상의 영혼이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리하여 왕이나 족장은 시조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면서 그 후계자의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사회는 이미 초부족적인 상태로 변하였으므로, 샤머니즘 등의 원시 종교를 가지고서는 확대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부족과 부족을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을 가진 새로운 종교인 불교가 이를 대신하여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불교는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체제가 정비될 무렵에 전래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때에, 백제에서는 침류왕 때에 공인되었다. 그리고 신라에는 5세기 중엽에 전래되었으나, 법흥왕 때에 이르러 이차돈이 순교한 뒤부터 공인되었다. 삼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왕실이었다. 따라서, 불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당시의 불교는 종교로서의 구실과 함께 서역과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달하여 고대 문화의 발달에 공헌하였다. 또, 인간 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려 하였다. 아울러 하나의 불법에 귀의하는 같은 신도라는 신념은, 국왕을 받드는 같은 신민이라는 생각과 함께 중앙 집권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울진군이 신라에 병합되기 전 고구려 영토일 때 이미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그러나 울진군에는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법흥왕 이전의 불교 유적은 없고, 이보다 훨씬 후의 것이 확인되고 있다. 즉 울진지역에는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전래된 것이 아니라 신라의 불교가 전파되었던 것이다. 불교가 전래되던 초기의 신라에서는 평지에 사찰이 세워졌다. 6세기 경주에 건립된 거찰은 대부분 평지가람이다. 그리고 이들 가람은 1금당1탑의 배치양식을 취한다. 그러다가 통일신라시대에 오면 1금당2탑의 가람양식이 나타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산지가람도 나타난다. 1금당2탑 가람양식의 출현이나 산지가람의 출현은 교리나 신앙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삼국시대 말엽부터 불교가 호국신앙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변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현세구복적인 미륵신앙불교에서 종교 본래의 내세적 불교로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불교교리 연구가 성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화엄사상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화엄종의

개조는 의상이었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화엄학을 배워 와서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이어서 오악을 위시한 전국의 명산에 화엄종 계통의 사찰을 세워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의상의 화엄사상은 원효의 화쟁사상과는 달리 지배층이 중심이 되는 통화사상(統和思想)이었다. 즉 원효는 그의 저서인 「십문화쟁론」에서 일반민중을 중심으로 한 화합사상을 주창한 반면에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에서 중앙집권적 전제왕권의 통합체제를 뒷받침하는 데 적합한 사상을 포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 교리의 변모로 평지가람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민중의 생활과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사찰을 창건하게 되었다.<sup>228</sup>

이러한 산지가람 양식과 1금당 2탑의 양식으로 의상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 바로 불영사이다. 따라서 불영사는 통일신라 중앙정부의 전제왕권 정치를 충실히 수행하는 수호사찰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를 바탕으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울진지역의 사찰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울진지역에 창건된 사찰은 불영사를 비롯해서 수진사·광흥사·대흥사·청암사·성류사·천량암·대천사·신흥사 등 9개 사찰이다. 사적기가 있는 불영사나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이 있는 청암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찰의 창건에 관해서는 모두 구전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은 떨어진다. 다만, 이들 사찰 가운데 강력한 억불정책을 실시한 조선시대 까지도 존속한 수진사·성류사·천량암 등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6세기 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sup>229</sup> 이 시기 평해군과 울진현에 존재하는 사찰은 천량암·진관사·검산사·정림사·성류사·백암사·선암사·수진사·심수사 등 모두 9개 사찰이다. 이 가운데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조선전기까지 사세를 유지해온 사찰은 불영사·수진사·성류사·천량암 등이며, 조선후기까지 사세를 유지해온 사찰은 불영사, 수진사, 광흥사, 대흥사, 천량암 정도이다. 또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 가운데서 일제 강점기에도 존립한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대흥사·성류사·천량암·신흥사 등 7개 사찰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사찰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에 불과하다.

신흥사의 경우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이후 오랫동안 폐사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중창하여 역사적 연속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나마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사찰은 불영사, 수진사, 광흥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진사와 광흥사는 사찰 이름만 유지하였을 뿐 전통적인 불교 유적과 유물이 거의 없어서 전통사찰로 명명되기는 어렵다. 다만 수진사의 경우 고려시대 석탑재가 유존하고 있고, 조선시대 제작된 수진사 신중탱, 그리고 무위선사와 봉현선사의 부

228. 울진군·안동대학교, 1991, 『울진의 문화재』, 안동영남사, 49쪽

229. 이행 외,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5(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547쪽, 588쪽

도가 유존하여 역사적 연속성 엿볼 수 있으나 불전은 모두 1960년대 이후에 건축한 것이다. 결국 불영사를 제외하면 울진지역에는 전통사찰이 없다는 것이다.

불영사·대흥사·신흥사의 창건 설화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다. 세 사찰 모두 의상이 창건하였으며, 비둘기를 날려 절터를 확정하였다는 점이다. 의상대사가 절터를 찾으려고 금강산에서 비둘기 세 마리를 날리자 한 마리는 신흥사, 한 마리는 대흥사, 나머지 한 마리는 불영사로 날아갔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온다. 군위군 압곡사가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날려 보내서 앉은 자리에 절을 지었다는 설화와 유사하다.

<표 135> 통일신라시대 울진지역 사지 현황

사지명	위치	시대	비고
대흥사지	울진읍 대흥리 본동	통일신라	부도, 주초석, 와편, 대웅전을 동림사 이건(1963년)
천량암터	근남면 행곡리 천량산골	〃	금폐
성류사지	근남면 구산리 성류산	〃	금폐
대천사지	근남면 노음리 오로동	〃	금폐, 삼층석탑 동림사 이건(1963년)
청암사지	근남면 구산리 탑평동	〃	삼층석탑, 석등재, 주추석, 기단 석렬, 금동불상, 인화문 토기, 중국동전(구산리사지)
신흥사지	매화면 덕신리 향곡동	〃	금폐, 우물, 와편(덕신리사지)
수진사지	평해읍 오곡리 물방아골	〃	금폐(현재 수진사)

<표 135>은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지이다. 다만 수진사지의 경우는 고려시대 사지로 확인하였으나 울진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sup>230</sup> 하여 그 견해를 따랐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울진지역에서 창건된 사찰은 9개라고 했는데 사지 현황에서는 7개만 보이고 있다. 즉 불영사와 광흥사는 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6년 울진지역의 청암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로 7세기 후반의 인화문 토기가 확인되었다. 청암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금동불상, 기와, 자기, 동전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중 소수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금동불상, 중판 타날문양 평기와, 인화문 토기 편 등이 출토되어 청암사의 창건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가 되었다. 특히 청암사지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유물은 인화문 토기편으로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것들이다.<sup>231</sup> 청암사지에 남아 있는 구산리 삼층석탑[일명 청암사지 삼층석탑]은 9세기 후반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울진에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불교 관련 유물 가운데 가장 빠

230. 울진문화원, 1998, 『울진의 사찰』, 새암기획, 50쪽

231. 심현용, 2014, 『울진 불영사의 창건과 응진전』『박물관지』20,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50쪽

른 시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석탑은 삼국시대 말기인 600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석탑은 634년(선덕여왕 3)에 건립된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석탑의 건립은 불교의 전파와 함께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수도인 경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울진지역에 불교가 전파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울진지역에서 확인된 가장 빠른 불교 관련 유물은 7세기 후반의 인화문 토기와 9세기 후반의 구산리 삼층석탑이다.<sup>232</sup> 특히, 7세기 후반의 청암사지에서 출토된 토기는 보천태자가 울진지역에 와서 장천굴의 굴신을 불교에 귀의시키는 시기와 비슷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 청암사지에는 석등재가 유존하는데, 파손이 심하여 제작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조각수법으로 보아 전형적인 석등양식을 계승한 통일신라 말~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33</sup>

불영사의 창건은 사실 연기설화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만한 고고학적 성과는 없지만 후대 지리지나 읍지에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기록되고 있다. 또 청암사지에서 발견된 인화문 토기가 울진지역 불교 전래시기를 불영사의 창건시기와 동시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고려시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고려시대의 불교이다. 현재 한국 불교의 성격은 이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 말에 전래한 선은 고려에 와서 독자적인 전개를 해서 9산선문을 형성했고, 현재 조계종의 원류가 고려시대에 확립되었다. 그리고 신라에 없었던 천태종이 성립되었고, 선종과 함께 교종도 발전하여 선교양종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태조의 호국불교가 대대로 계승되어 나라의 안녕과 복을 비는 법회가 빈번히 개최되어 불교의식이 가장 성행했고, 또 외적의 침입을 부처의 가피력으로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판각했다. 한편으로는 계율을 어기는 일부 승려들이 민심을 혼혹시켰고, 불교 교단의 확대와 함께 지나친 사찰 건립은 많은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울진지역에서도 사찰 건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도 있지만, 고려 왕실의 승불정책과 후삼국 통일로 인한 민족 통합의 차원에서 새로운 사찰이 창건되었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 가운데 사명이 전해지는 것은 정림사·장재사·배잠사·광대사·선암사·백암사·덕정사 등 7개 사찰이고, 사명이 전해지지 않는 사찰은 울진읍 신림리사지 사찰, 평해읍 직산리사지 사찰, 기성면 이평리사지 사찰 등

232. 심현용, 2005, 「석조물로 본 울진지역 불교문화」『박물관지』11,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122쪽

233. 심현용, 2005, 위 논문, 113쪽

3개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울진지역에 창건된 사찰은 모두 10개이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은 모두 사적이나 연대기 등의 기록은 없고 다만 사지에 남아 있는 석조물이나 고고학적 발굴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표 136> 고려시대 울진지역의 사지 현황

사지명	위치	시대	비고
백암사지	온정면 소태리 백암산뱀골	고려시대	금폐
선암사지	온정면 조금리 선암사골	〃	금폐
장재사지	북면 주인리 면전동	〃	삼층석탑, 석불좌상, 축대, 와편(주인리 사지)
배잠사지	근남면 구산리 외성산동	〃	당간지주, 석탑재, 와편
정림사지	울진읍 정림리 절골	〃	주초석, 탑재, 기단석
신림리사지	울진읍 신림리 절골	〃	금폐, 와편
광대사지	매화면 길곡리 광대골	〃	금폐, 주초석, 장대석, 석탑부재, 삼층석탑 경주박물관 이건
덕정사지	죽변면 화성리 반정	〃	금폐, 주초석, 와편(화성리사지)
직산리사지	평해읍 직산리 탑산골	〃	금폐, 석탑
이평리사지	기성면 이평리 상심수절골	〃	금폐, 와편

고려시대 울진지역에 존재하였던 사찰은 얼마나 되었을까? 고려시대 울진지역에 창건된 사찰은 모두 10개로 정림사, 장재사, 배잠사, 선암사, 백암사 광대사, 덕정사, 신림리사지, 직산리사지, 이평리사지 등이다. 고려시대 사찰과 관련된 사적기나 지리지 등이 거의 없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사지에 남아 있는 석조물이나 고고학적 발굴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표 136>에서 발굴 조사 결과 고려시대로 추정이 되는 유물들이 많이 수습되었다.

북면 주인리에 있는 장재사지 삼층석탑은 ‘주인리 삼층석탑’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층기단을 구비한 평면방형의 일반형 삼층석탑이다. 제작 시기는 고려 초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 중·후기의 석탑으로 추정된다.<sup>234</sup> 또 장재사지에는 ‘주인리 석불’로 알려진 장재사지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유존하고 있다. 결가부좌한 약사여래좌상은 전체적으로 파손과 마모가 심하여 제작시기를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세부양식으로 보아 고려 중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35</sup>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배잠사지 당간지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2호로 지정되었다.

234. 심현용, 2005, 위 논문, 99~100쪽

235. 심현용, 2005, 위 논문, 104~105쪽

당간지주는 전체적으로 돌을 다듬은 정(丁)자국이 다수 보이는 등 치석도 고르지 못하며, 조식이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단아하고 둔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형태에서 많이 퇴화한 일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작 시기는 고려후기로 추정된다.<sup>236</sup>

매화면 길곡리 광대사지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대사지 삼층석탑이 있었는데, 1972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sup>237</sup>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 외에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까지 유지되어 왔던 사찰도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불영사·수진사·광흥사·대흥사·청암사·성류사·천량암·대청사·신흥사·불귀사 등 10개 사찰도 불교국가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에도 사세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16세기 전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sup>238</sup> 현존하는 사찰로 기록된 불귀사·천량암·진관사·검산사·정림사·성류사·백암사·선암사·수진사·심수사 등 10개 사찰은 고려시대에도 사세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즉, 억불정책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전기에 변방에서 사찰을 창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사찰이 고려시대에 모두 폐사된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는 불교 국가이다. 고려시대에는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비보사찰이 3,000개나 된다고 할 정도였다. 고려시대 불교는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국불교로서 기능하면서 원찰이나 비보사찰이 허다하게 창건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가장 왕성한 사찰 창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려 후기 몽골과의 전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사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조선 초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수진사·불귀사(불영사)·성류사·천량암 등은 고려시대에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수진사의 석탑재이다. 수진사 석탑재는 고려시대 삼층석탑 양식의 탑재이므로 수진사는 고려시대에도 존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의해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확인된 사찰은 10여개이다. 이 중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사명이 전해지는 사찰은 정림사, 선암사, 백암사 정도이다. 고려 시대에 창건된 사찰 가운데 현재까지 사명이 전해지는 사찰은 없다. 따라서 고려시대 울진지역에서 사세를 유지해온 사찰은 적어도 15~20개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조선시대

조선시대 억불정책 아래에서도 울진지역에서는 사찰 창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승역 체계가 변화하고 승역의 필요성과 승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불교 정책의

236. 심현용, 2005, 위 논문, 112~113쪽

237. 심현용, 2005, 위 논문, 100쪽, 그런데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18쪽 '광대사지'에 오층석탑이라고 함

238. 이행 외, 1996, 앞 책, 547쪽, 588쪽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찰과 왕실과의 상호 필요에 의한 관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억불정책 아래서 사찰이 존립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어막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 왕실이기 때문이다. 왕실의 왕위 계승과 무병장수, 극락왕생 등 구복의 서원을 빌어 줄 수 있는 곳이 또한 사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시대 울진군에 존립하였던 사찰 현황을 살펴보자 한다.

조선시대 울진지역에 창건이 확인된 사찰은 성조암, 옥정사, 심수사, 기양리사지 사찰, 후포리사지 사찰, 계조암 등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지리지나 읍지에 새로 창건된 사찰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시대 울진군에 존립하였던 사찰 현황을 지리지나 읍지, 사적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137>과 같다.

<표 137> 조선시대 울진군의 사찰 현황

사찰명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여지도서 (1765)	범우고 (1799)	평해군읍지 (1899)	비고
천량암	0	0			원효 주석, 바위에서 쌀이 나옴
진관사	0				
검산사	0				
정림사	0		0		
성류사	0				이곡(李穀)의 기(記)
백암사	0			폐사	이산해(李山海)의 기(記)
선암사	0	0(43칸)	0	폐사(24칸)	
수진사	0	0(46칸)	0	0(32칸)	
심수사	0				
불영사	불귀사	불영암(40칸)	불영암		
대흥사		대흥암(33칸)	대흥암		
계조암		0(6칸)	0	폐사(3칸)	달공화상(達公和尚)의 전설
광흥사		0(87칸)	0	0(51칸)	
13	10	7	7		

조선왕조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사회로 중앙 관료가 지방관으로 임명되어 지방을 통치하는 것이다. 지방관의 파견은 연고지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피제를 적용하므로 낯선 지방에 부임하게 된다. 지방의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 지리지나 읍지류 등이다. 부임할 지방의 실정을 미리 파악하고 내려가서 선정을 하라는 의도였다.

조선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후기의 『여지도서(輿地圖書)』가 대표적인 지리지와 읍지이다. 그리고 『범우고(梵宇攷)』는 왕명으로 전국 8도에 흩어져 있는 절의 존폐·소재·연혁 등을 정리하여 간행한 사적기이다. 『평해군읍지(平海郡邑誌)』는 평해 지역의 사찰만 기록되어 한계는 있으나 평해지역의 사찰 현황의 추이를 밝힐 수 있는데 참고가 된다. 이들 사서를 비교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전기 울진지역에 존립하였던 사찰은 천량암·진관사·검산사·정림사·성류사·백암사·선암사·수진사·심수사·불영사 등 10개이다. 이 사찰들이 모두 조선전기에 창건된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그것도 조선 초에는 왕실이 아니고서는 사찰 창건이 어렵고, 지방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수진사·불구사·성류사·천량암은 통일신라 때 창건된 사찰로 조선시대까지 사세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진사의 경우 고려시대의 사적은 없으나 현재 수진사에 남아 있는 석탑재가 고려시대 것으로 확인된 바 수진사는 고려시대에도 불사를 하는 등 사세를 유지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류사의 경우도 수진사와 마찬가지로 고려후기의 학자인 이곡(李穀)의 사기(寺記)가<sup>239</sup>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사세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암사와 백암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시대까지 존립하였다.

또 이들 사찰 가운데 조선후기까지 존립한 사찰은 천량암, 정림사, 선암사, 수진사, 불영사 등 5개이다. 천량암은 『여지도서』에는 기록되었다가 30여년 후인 『범우고』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정림사는 『여지도서』 기록에는 없다가 『범우고』에 등장한 것은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으로 폐사되었다가 새로 중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새롭게 사찰을 창건할 수는 없지만 폐사지에 기존의 사찰 이름으로 재창건을 하거나 사찰의 이름을 바꾸어서 혹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찰을 건립하기도 하며, 본사의 부속사암의 형태를 빌어서 창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40</sup> 대흥사와 광흥사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이들 사찰은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도 기록되고<sup>241</sup> 있음을 보아 일제 강점기까지 사세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불영사와 대흥사는 조선후기에는 암자였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사(寺)로 기록되고 있다.

불영사의 경우 태조 초년의 화재로 대부분의 불전이 소실되었지만 여러 차례 중건으로 사격을 유지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다시 전소가 되면서 여러 차례 중건에도 사격이 미약하여 점점 암자로 격하된 듯하다. 그래서 1765년(영조 41)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불영암’으로 규모는 40칸이라<sup>242</sup>고 기록되었던 것이다.

239. 이행 외, 1996, 위 책, 588쪽

240. 박병선, 2001, 『조선후기 원당 연구』, 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7쪽

241. 울진문화원, 2017, 『국역 조선환여승람 울진군·강원도 평해군읍지』(김정민·김주부 역), 대구 명성프로젝트, 44쪽

242. 『여지도서』상, 「울진현 사찰」(1973, 탐구당, 562쪽)

조선시대 억불정책 아래서 사찰이 존립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왕실과 관련은 맷거나 지방관 및 재지 양반들의 도움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기복적 신앙과 사찰의 생존이 서로 일치하면서 생겨난 것이 원당(願堂)이다. 원당이란 왕실의 복을 비는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지칭하는데, 사찰에 독립된 전각을 세우거나 기존 불당 한쪽에 마련하기도 한다. 왕실에서는 왕위를 승계할 왕자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정도다. 왕실에서는 관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원당을 설립하고 선대의 명복과 왕실의 안녕을 위한 불사를 하였다. 숙종 연간에 팔공산 파계사가 왕자 탄신 불공으로 영조를 얻게 하였으므로 영조의 원당<sup>243</sup>이 되어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아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불영사는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원당이다. 현재 의상전(義湘殿)이라 불리는 작은 건물이 원래 인현왕후의 원당으로 지금도 인현왕후의 화상이 걸려 있다. 인현왕후는 숙종의 계비로 인경왕후가 죽자 왕비가 되었으나 장희빈과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희빈에게 밀려났다가 다시 복위되는 비운의 왕비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영사의 스님과 가졌던 인연이 사찰 내에 있는 '불영사사적비'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숙종이 총애하는 장희빈 때문에 인현왕후가 폐출되자 왕비가 자결하려 하였으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말하기를 저는 불영사에서 왔는데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튿날 궁희가 꾸민 사건이 발각되어 죄를 받고 왕비는 환궁하게 된 까닭에 불영사 사방 10리 정도의 산을 하사하고 네 곳에 표를 세워 부처님의 은혜에 사례를 하였다고 한다.」

또 수년 전에 의상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발견된 '인현왕후원당 상량문(仁顯王后願堂上樑文)'의 기록으로 왕실과 불영사와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1867년에 작성된 '인현왕후원당 상량문'은 다음과 같다.

「대저 사찰의 사적이란 것은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면 물어서 고찰할 데가 없어, 연도를 추측해 따지려고 하면, 이러니저러니 하여 억측으로 헤아릴 수 없다. 신민들의 도리에 있어서는 어찌 이만저만 황송하지 않겠는가! 불교에 대하여 후자들은 임금의 교화[통치영역] 밖에 있다 라고도 하지만, 우리 동방에 살면서 꾸물거리는 생령들은 모두 우리 성군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성은을 갚고자 하면 수미산을 다 돌아도 끝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예로부터 전해오던 말들을 모아 전하건대, 본사의 산천초목과 스님들이 두루 왕후의 은덕을 입어서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다고 한다. 마음속에 그리워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으며 조바심을 낸 것이 얼마간이겠는가! 이에 감히 좋은 해 좋은 달 좋은 날을 택일하여

243. 박병선, 2001, 앞 논문, 30쪽

절의 서쪽 깨끗한 곳에 원당을 건축하고, 억만 년 동안이나 성덕이 무강하고 국가가 평안하기를 봉축한다. 대청 동치 6년 정묘 4월 26일 주지 신하 승려 유찰은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삼가 쓴다.」<sup>244</sup>

불영사는 조선시대 산간에 중창되는 가람 배치법을 계승한 사찰이면서도 이와는 조금 다른 배치법을 하고 있다. 가람 배치란 사찰을 구성하는 건물들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에 중창되는 사찰들은 대체로 절 입구에 일주문(一柱門)을 세우고 조금 들어가서 중문(中門)인 사천왕문(四天王門)을 짓고 더 들어가면 2층 구조의 누각을 지으며 이를 지나면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 양쪽 옆으로 스님이 사는 승방을 두고 정면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존 불로 모시는 대웅전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극락보전이 있는 배치법이 통례이다. 그런데 불영사는 이러한 가람 배치에서 일주문과 중문이 없을 뿐 누각부터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배치법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지었다.<sup>245</sup>

조선시대 사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여지도서』에 선암사 43칸, 수진사 46칸, 불영암 40칸, 대흥암 33칸, 계조암 6칸, 광흥사 87칸 규모로 기록되어 있다. 사찰의 본당인 대웅전이 보통 전면 3칸 측면 2칸 정도의 규모니까 작은 사찰은 아니다. 암자인 불영암과 대흥암이 30~40칸이면 대웅전 같은 건물이 5~6채 정도 규모가 된다. 물론 현재와 같이 기와로 건축한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현재로도 작은 사찰은 아니다. 계조암은 6칸에 불과 하지만 하나의 암자이다. 특히 광흥사는 상당히 큰 사찰로 다른 사찰들의 두 배 규모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집은 100칸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권세 있는 양반의 집은 99칸이라고 한다. 사찰이라고 해서 이러한 제한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87칸의 광흥사는 대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광흥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이지만 한때 폐사되었다가 조선후기에 중창하였다. 광흥사는 17~19세기 말까지 사세가 번창하여 당시에는 현 덕산리 지역의 대부분의 전답과 임야가 광흥사의 소유였으며 이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광흥사의 소작농을 하던 불도들이었다고 한다. 광흥사가 비록 19세기 말엽에 51칸으로 규모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울진지역에서는 큰 사찰로 존재하였다.

『여지도서』 시기의 사찰 규모가 『평해군읍지』 시기에 오면 축소되고 폐사하는 사찰도 있다. 선암사는 43칸에서 24칸으로 19칸이나 줄어들면서 이미 폐사되었고, 수진사는 46칸에서 32칸으로 14칸이 줄어들었다. 계조암은 6칸에서 3칸으로 줄어들면서 이미 폐사되었고, 광흥사는 87칸에서 51칸으로 무려 36칸이나 줄어들었다. 불영암과 대흥암의 경우 『평해군읍지』와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1830년경에 편찬된 『관동지(關東誌)』에 불영암 40칸, 대흥암 33칸

244. 심현용, 2005,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료 고찰」『불교고고학』5, 위덕대학교박물관, 29쪽

245. 심현용, 2014, 앞 논문, 61쪽

으로<sup>246</sup> 『여지도서』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표 138> 조선시대 울진지역의 사지 현황

사지명	위치	시대	비고
옥정사지	북면 고목리 지장동	조선시대	금폐(고목리사지)
성조암터	북면 주인리 면전동	〃	금폐(현재 성조암)
심수사지	온정면 온정리 독점골	〃	금폐(온정리사지)
계조암터	온정면 소태리 단아동	〃	금폐, 와편
기양리사지	매화면 기양리 절골	〃	금폐
후포리사지	후포면 후포리 절골	〃	금폐

조선시대 울진지역에 창건이 확인된 사찰은 옥정사·성조암·심수사·계조암·기양리사지·사찰·후포리사지 등이다.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 가운데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사세를 유지한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대흥사·성류사·천량암·정림사·선암사·백암사 등 9개 사찰이다. 반면에 조선시대부터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찰도 있는데, 청암사·대천사·장재사·배암사·광대사·신림리사지·직산리사지·이평리사지 등 8개 사찰이다. 이들 사찰은 현재까지 사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처음 나타나는 사찰도 있다. 심수사·계조암·진관사·검산사 등 4개 사찰이다. 그 중에서 심수사와 계조암은 조선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진관사와 검산사는 사적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진현 불우조에 진관사는 백암산에 있다고 하였으며, 검산사는 백련산에 있다고만 되어있다.<sup>247</sup> 그리고 1799년에 편찬된 『범우고』 울진현 사찰조에는 진관사는 백암산에 있고 현재 폐사되었다고 하였으며, 검산사는 현재 폐사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sup>248</sup>

폐사되었던 진관사와 검산사는 1937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에 다시 존립하고 있는 사찰로 기록되어 있다.<sup>249</sup> 일제강점기에 중창하였다가 한국전쟁 당시 다시 폐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다만 『울진의 사찰』에서는 ‘검산사는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검산 중허리에 있었던 사찰로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한다. 또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고 하였으며, 천량암 서쪽 2km 되는 곳에 있고 지금은 주초석만

246. 강원도, 2007, 『국역 관동지』하, 도서출판 산책, 201쪽

247. 이행 외, 1996, 앞 책, 588쪽

248. 『범우고』『원춘도』 “사찰”(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검색), 125쪽

249. 울진문화원, 2017, 앞 책, 44쪽

남아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sup>250</sup> 그러나 진관사에 관해서는 더는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시대 울진지역에서 활동한 사찰은 최소 7개에서 최대 17개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존립하였던 사찰이 일제강점기까지 사세를 유지한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대흥사·성류사·천량암·진관사·검산사·정림사·선암사·백암사·계조암 등 모두 12개이다. 이들 중에서 현재까지 사명이 남아 있는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 등 3개 사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울진군에는 불영사를 제외하면 전통 사찰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4) 근대 및 현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을 계기로 조선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편입하게 되었다. 이후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변화의 물결에서 불교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산중에 머물러 있던 불교는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위상을 세워야만 했다. 개항과 더불어 서구 종교와 일본 불교의 유입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되면서 조선의 억불정책이 폐지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는가 하였는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1911년 일제가 단행한 ‘조선 사찰령’이 내려지면서 30본사 제도가 시행되어 한국 불교를 총독부가 장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불교의 침투는 결과적으로 한국 승려들의 대처화를 묵인·조장하였으며 이는 뒷날 비구승과 대처승간의 분쟁의 씨앗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불교에는 필연적으로 일제불교의 청산과 교단의 정화가 과제로 제기되었다. 전쟁 직후 일제강점기에 합법화 되었던 승려의 결혼제도에 반대하는 교단 정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국 불교는 여러 종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근·현대시기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새로운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 후 이념 대립과 민주화 열풍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아래서도 울진지역의 불교계는 기존 사찰의 유지, 발전과 새로운 사찰의 창건이 계속되고 있었다.

개화시기 울진지역의 사찰 현황을 평해군에 한정된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평해군에는 이전까지 수진사·광흥사·계조암·선암사 등 4개 사찰이 존립하였으나, 1899년에 편찬된 『평해군읍지』에는 수진사와 광흥사 2개 사찰만이 유지되고 있다. 단편적인 사례로만 보면 개화시기에 울진지역의 현존 사찰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오면 16개의 사찰이 존립하였음을 볼 수 있다. 1937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 울진군 사찰조에 의하면 불영사·

250.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55쪽

대흥사·신흥사·광흥사·성조암·천량암·진관사·검산사·정림사·성류사·백암사·선암사·수진사·계조암·보광사·동본원사포교소 등 16개 사찰이 존립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251</sup> 일제강점기에 16개 사찰이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 불교의 침투와 사찰령의 반포로 불교계가 위축된 상태인 동시에 식민지 백성들의 고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의 사찰이 사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기에 편찬된 『강원도지(江原道誌)』(1941)에 의하면 울진지역에서는 불영사·수진사·광흥사·대흥사·천량암·신흥사·선암사·백암사[온정면]·계조암·성조암·보광사 등 11개의 사찰이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다.<sup>252</sup>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여타의 원인으로 폐사되고 불영사·신흥사·광흥사·성조암·수진사·보광사 등 6개 사찰만이 사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도 해방 이후 울진지역에서는 사찰 창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울진지역에서도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으나 사찰의 창건 내력이 알려진 곳을 그리 많지 않다. 앞서 ‘사찰’ 편에서 소개된 보광사·동림사·광도사·월궁사·죽청사·부국사·봉화사·용천사·신광사·신계사·지장사·용화사·자황사 등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근·현대 울진지역에서 창건된 사찰 현황을 보면, <표 139>과 같다.

<표 139> 근·현대 울진지역 창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동림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10-3	조계종	1952년
보광사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61	//	1931년
용천사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588	//	1976년
지장사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28	//	1994년
봉화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산16-5	천태종	1974년
일출사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17		
원불교울진교당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03-16	원불교	1967년
법연원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3-2		
월궁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산 28-2	//	1953년
선적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03-5	//	
월광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049-4		
수현사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244-1		

251. 울진문화원, 2017, 앞 책, 44~45쪽

252. 『강원도지』권5, 「사찰 울진·구평해」(강원지간행소, 1941), 40~43쪽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신광사	울진군 북면 덕구리 724	조계종	1983년
옥정사	울진군 북면 고목리 729	태고종	1954년
부국사	울진군 북면 부구리 1043	천태종	1967년
성주암	울진군 북면 주인리 467		
성조사	울진군 북면 부구리 1308	삼론종	1994년
불성사	울진군 북면 덕구리 708-1	조계종	
흥륜사	울진군 북면 두천2리 607	원효종	
신계사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275-48	태고종	1989년
아미사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2-1	아미타종	2009년
용화사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107	조계종	1994년
구암사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87	〃	
죽청사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437	천태종	1970년
신흥사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839	조계종	
관음사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498-1	미타종	1998년
후포광도사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40-3	조계종	1952년
후포원불교	울진군 후포면 후포5리 1003-8	원불교	
후포교당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537-1	천태종	동해사
용궁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289-33		
청명사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844		
해광사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45	천태종	
용궁사고구려총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1505		
자황사	울진군 근남면 행곡3리 994-2	자황종	2010년
보광사	울진군 온정면 금천2리 958	〃	1972년
백련암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357		
백문사	울진군 온정면 소태2리 580-1	천태종	1990년
신불사	울진군 기성면 구산봉산로 251-140	조계종	
천태종기성포교당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791	천태종	
산하백암사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442	정토종	1995년
영명사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산 68	태고종	2003년
구룡사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808번지		
오봉사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209	삼론종	

※ 사찰명과 주소는 울진군청에서 제공하였고, 종단과 창건 시기는 필자가 확인하였음

현재 울진군 전역에서 사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파악된 것만 46개 사찰이다. 현존하는 46개 사찰 가운데 신라시대에 창건된 불영사, 수진사, 광흥사를 제외하면 근·현대 울진지역에서 창건된 사찰은 43개이다. 불영사만 창건에서 현재까지 사세를 유지해 왔을 뿐 수진사와 광흥사는 현대에 재창건한 사찰이다. 따라서 울진지역의 전통사찰은 불영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울진지역의 현존하는 사찰 46개는 울진지역만 놓고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인근 지역인 영주는 2015년 현재 104개의 사찰이 사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46개의 사찰 가운데 사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은 많지 않다. 사찰의 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울진군에서는 현존하는 모든 사찰을 확인하여 사적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3. 울진지역의 불교 현황

#### 1) 시대별 현황

울진지역 사찰 가운데 창건 시기나 존재 시기가 확인된 사찰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존립한 사찰을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울진지역의 불교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기왕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0> 울진군의 시대별 사찰 현황

사찰명	통일 신라	고려 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 조선환여승람 (1937년)	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여지도서 (1765년)	범우고 (1799년)		
불영사	□		불귀사	불영암	불영암	0	현존
수진사	□		0	0	0	0	현존
광흥사	□			0	0	0	현존
대흥사	□			대흥암	대흥암	0	
청암사	□						
성류사	□		0			0	
천량암	□		0	0		0	
대천사	□						
신흥사	□					0	
진관사			0			0	

사찰명	통일 신라	고려 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 조선환여승람 (1937년)	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여지도서 (1765년)	범우고 (1799년)		
검산사			0			0	
심수사			□				
정림사		□	0		0	0	
장재사		□					
배암사		□					
광대사		□					
선암사		□	0	0	0	0	
백암사		□	0			0	
덕정사		□					
계조암				□	0	0	
보광사 (울진읍)						0	현존
동분원사 포교소						0	
신림리사지		□					
직산리사지		□					
이평리사지		□					
성조암			□	0	현존		
옥정사			□				
기양리사지			□				
후포리사지			□				
29	9	10	10	7	7	16	5

□: 창건이 확인된 사찰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이 5세기 초였다. 그리고 신라에서 불교가 국가적인 공인을 받은 것은 527년(법흥왕 14)이다. 그리고 120여 년 뒤에 울진군의 불영사가 651년(선덕여왕 5)에 창건되었다. 불영사 창건 이후 많은 사찰이 창건되어 통일신라시대 울진지역에서 활동한 사찰은 10여 개나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 가운데서 일제강점기까지 존속한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대흥사·성류사·천량암·신흥사 등 7개 사찰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현재까지 사찰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 온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 등 3개이다.

그러나 이들 사찰의 고려시대 사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이들 사찰이 고려시대에 모두 폐사된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고려는 불교 국가이다. 고려시대에는 많

은 사찰이 창건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비보사찰이 3,000개나 된다고 할 정도였다. 고려 후기 몽골과의 전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사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조선 초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수진사·불영사[불구사]·성류사·천량암 등은 고려시대에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수진사의 석탑재이다. 수진사 석탑재는 고려시대 삼층석탑 양식의 탑재이므로 수진사는 고려시대에도 존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확인된 사찰은 10여 개이다. 이 중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사명이 전해지는 사찰은 정림사·선암사·백암사 정도이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 가운데 현재까지 사명이 전해지는 사찰은 없다. 따라서 고려시대 울진지역에서 사세를 유지해온 사찰은 적어도 15~19개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울진지역에 창건이 확인된 사찰은 성조암·옥정사·심수사·기양리사지 사찰·후포리사지 사찰·계조암 등이다.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 가운데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사세를 유지한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대흥사·성류사·천량암·정림사·선암사·백암사 등 9개 사찰이다. 반면에 조선시대부터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찰도 있는데, 청암사·대천사·장재사·배암사·광대사·신림리사지·직산리사지·이평리사지 등 8개 사찰이다. 이들 사찰은 현재까지 사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처음 나타나는 사찰도 있다. 심수사·계조암·진관사·검산사 등 4개 사찰이다. 그 중에서 심수사와 계조암은 조선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진관사와 검산사는 사적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진현 불우조에 진관사는 백암산에 있다고 하였으며, 검산사는 백련산에 있다고만 되어있다.<sup>253</sup> 그리고 1799년에 편찬된 『범우고』 울진현조에는 진관사는 백암산에 있고 현재 폐사되었다고 하였으며, 검산사는 현재 폐사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sup>254</sup> 폐사되었던 진관사와 검산사는 1937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에 다시 존립하고 있는 사찰로 기록되어 있다.<sup>255</sup> 일제강점기에 중창하였다가 한국 전쟁 당시 다시 폐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다만 『울진의 사찰』에서는 ‘검산사는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검산 중허리에 있었던 사찰로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한다. 또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고 하였으며, 천량암 서쪽 2km 되는 곳에 있고 지금은 주초석만 남아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sup>256</sup> 그러나 진관사에 관해서는 더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광흥사, 대흥사는 조선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는 없다가 조선후기 『여지도서』나 『범우고』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궁

253. 이행 외,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5(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588쪽

254. 『범우고』『원춘도』, “울진 사찰”(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검색), 125쪽

255. 울진문화원, 2017, 『국역 조선환여승람 울진군·강원도 평해군읍지』(김정민·김주부 역), 대구 명성프로젝트, 44쪽

256. 울진문화원, 1998, 『울진의 사찰』, 사암기획, 55쪽

핍이나,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나 화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울진지역에서 활동한 사찰은 최소 7개에서 최대 17개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존립하였던 사찰이 일제강점기까지 사세를 유지한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대흥사·성류사·천량암·진관사·검산사·정림사·선암사·백암사·계조암 등 모두 12개이다. 이들 중에서 현재까지 사명이 남아 있는 사찰은 불영사·수진사·광흥사 등 3개 사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울진군에는 전통 사찰이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16개 사찰이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 불교의 침투와 사찰령의 반포로 불교계가 위축된 상태인 동시에 식민지 백성들의 고난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 에 이 정도의 사찰이 사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 2) 지역별 현황

울진지역의 전통사찰 분포는 크게 3개 군으로 나눌 수 있다. 부구천을 중심으로 한 장재사지 군, 왕피천과 울진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불영사·대흥사지·대천사지·청암사지·배잡사지·광대사지·정림사지 군, 그리고 평해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수진사·광흥사·백암사지·직산리사지 군이다. 이 중 울진 남대천·왕피천을 중심으로 한 군과 평해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군에 사찰이 집중 분포되어 나타난다.

이 세 하천은 모두가 울진군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이렇게 이 주변에서 사찰이 집중되어 위치한다는 것은 당시 생활의 중심권이 하천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이 부근을 중심으로 울진지역의 불교문화가 가장 융성하게 발전한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는 울진 남대천·왕피천군에서 불영사가, 평해 남대천군에서 수진사·광흥사만이 사찰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세 곳 중에서도 수진사와 광흥사는 아주 소규모로 간신히 유지될 뿐 불영사만이 큰 사역을 이루며 지금까지 번창하고 있다. 이로써 불영사가 옛날부터 울진지역에서 불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곳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부분 전통사찰의 위치가 하천 주변의 산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울진지역의 지형이 대부분 산악지대로 되어있어서 접근이 쉬운 하천부근의 산지에 사찰이 건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불영사·수진사·백암사지·장재사지·정림사지 등 사찰의 입지조건이 천축산·백암산·장재산·비봉산 등 산 속에 위치한 산지가람을 띠고 있으나, 대천사지는 평지에 위치한 평지가람을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지역의 불교문화가 대부분 산지가람을 형성하나 평지가람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sup>257</sup>

257. 심현용, 2008, 「울진지역의 불교문화 연구」『경주문화연구』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원, 184~185쪽

이러한 맥락에서 울진지역의 사찰을 읍·면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 사찰의 분포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존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울진지역의 읍·면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울진군은 2읍 8면으로 모두 1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내륙지인 금강송면과 온정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해안을 접하고 있다. 제일 북쪽에서부터 북면·죽변면·울진읍·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평해읍·후포면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와 인접하지 않는 금강송면은 울진읍과 근남면의 서쪽에 위치하고, 온정면은 평해읍과 후포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울진군의 서부는 태백산맥의 정상부에 속하여 백암산·금장산·통고산·오미산·삿갓재·진조산·용봉산 등의 높은 산과 진산인 안일왕산(安逸王山)이 솟아 있다. 서부의 고산지대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차 낮아지는 동저서고 지형이다.

울진지역에는 현재 46여 개 사찰이 존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잣은 창건과 폐사가 반복되는 현실이라 확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울진지역의 사찰이다. 그리고 울진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사찰의 사지도 42개나 된다. 이들 가운데는 사찰 이름과 창건 시기가 확인되는 사지도 있지만 시대를 특정할 수 없거나 이름도 모르는 사지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찰과 사지를 울진군 읍·면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울진읍

울진읍은 울진군의 서북부에 있는 읍으로 울진군청의 소재지이다. 서쪽의 아구산(653m)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00~400m의 산지를 이룬다. 동쪽은 동해에 면해 있으며, 남대천이 읍 중앙을 남동류하여 동해로 흘러든다. 평야의 발달은 미약하다.

유물로는 고려시대의 교지 장량수 홍패(국보 제181호)가 있으며, 양정해수욕장·연호정 등의 관광지가 있다. 양양포항을 잇는 7번 국도가 해안을 따라 놓여 있다. 행정구역으로 읍내리·읍남리·연지리·온양리·명도리·고성리·호월리·정림리·신림리·대흥리 등 10개리가 있다 [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27개리]. 읍사무소 소재지는 울진읍 읍내10길 19이다. 2019년 기준 울진읍의 면적은 81.57km<sup>2</sup>이고, 인구는 14,270명이다

&lt;표 141&gt; 울진읍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동림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10-3	조계종	1952년
보광사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61	〃	1931년
용천사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588	〃	1976년
지장사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28	〃	1994년
봉화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산16-5	천태종	1974년
일출사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17	미상	
원불교울진교당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03-16	원불교	1967년
법연원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43-2		

&lt;표 142&gt; 울진읍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고성리사지	울진읍 고성리 성저	시대미상	금폐(능허사지)
봉림사지	울진읍 읍남리 상토일	〃	금폐, 측대, 와편
정림리사지	울진읍 정림리 절골	고려시대	주초석, 탑재, 기단석(정림사지)
대흥사지	울진읍 대흥리 본동	통일신라	부도, 주초석, 와편, 대웅전을 동림사 이건(1963년)
신림리사지	울진읍 신림리 절골	고려시대	금폐, 와편
진광사지	울진읍 읍내리	시대미상	금폐

울진읍은 울진군의 중심 지역으로 인구도 가장 많다. 현재 사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찰 수만 하더라도 8개로 울진군에서는 가장 많다. 사찰이 도심과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아 불자들도 선행활동에 편리할 것이다. 물론 자동차를 이용하면 먼 거리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히 지방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기동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찰은 불자들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울진읍 내에 있는 사찰은 일제강점기에 창건된 보광사를 제외하면 모두 광복 이후에 창건되었다. 사찰의 창건은 불교 종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사찰을 설립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다. 사찰 현황에서 종단이 '미상'으로 기록된 사찰은 아마도 개인 사찰이 아닐까 추정된다.

보광사(寶光寺)는 1931년 승려 보화(普化)가 창건하였으며, 1972년에 보덕 스님이 중창한 사찰로서 백암온천과 가까운 백일홍동산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보광사 불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웅전과 삼성각, 종각 등이 있다. 울진읍을 근거리에 둔 보광사는 사방에 수립이

울창하고 공기 또한 청량하여 울진 시민의 휴식처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sup>258</sup>

동림사(東林寺)는 1952년 불영사 주지 김용호(金龍浩)가 포교를 목적으로 불자의 희사 를 받아 민가를 구입하고 개수하여 포교당을 만들면서 창건되었으며, 불영사의 첫 번째 포교 당으로서 출발하였다. 동림사 대웅전은 원래 대흥사(大興寺) 대웅전으로서 숙종 7년(1681)에 건립되었다. 수십 년 동안 폐사로 방치되어 있다가 1963년 3월에 동림사로 이건하였다.<sup>259</sup>

동림사에는 고려 중기에 제작된 동림사 삼층석탑이 있다. 이 삼층석탑은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대천사지에서 옮겨온 것이다.

울진읍 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절터는 6곳으로 근남면과 매화면의 7곳 다음으로 많다. 전통시대에도 울진읍 지역에서는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흥사지의 대흥사는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일제강점기까지 사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그 이후의 사적이 전무하여 알 수 없으나 폐사되어 사지로만 남은 듯하다. 의상대사가 비둘기 세 마리를 날려 그 중 한 마리가 대흥사에 앉아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대흥사지에는 민가와 경작지 주변으로 석축열이 일부 남아 있으며, 대흥사지 곳곳에 가공석과 기와 편, 백자편들이 산재하고 있다.<sup>260</sup> 또 1818년(순조 18)에 건립한 진허당(振虛堂) 지현(知玹)의 부도 1기가 남아 있다.

## (2) 평해읍

평해읍은 울진군의 동남부에 있는 읍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100m 내외의 산지를 이루며, 동쪽은 동해에 면해 있다. 남대천이 읍의 남부를 곡류하여 동해로 흘러들며 이들 연안의 월송리·학곡리 일대에는 소규모의 평야가 분포한다. 평해리의 읍사무소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울진평해농공단지가 입지한다.

동해안 월송리에는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월송정(越松亭)이 있다.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행정구역으로 평해리·학곡리·삼달리·오곡리·월송리·직산리·거일리 7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16개리]. 2019년 기준 면적 37.21km<sup>2</sup>이고, 인구는 2,952명이다.

258.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44쪽

259.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울진군·매일원색정판사, 249쪽

26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57쪽

&lt;표 143&gt; 평해읍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수진사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936	조계종	신라시대
월궁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산 28-2	〃	1953년
선적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03-5	〃	
월광사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049-4	미상	
수현사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244-1	〃	

&lt;표 144&gt; 평해읍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수진사지	평해읍 오곡리 물방아골	통일신라	금폐, 현재 수진사
학곡리사지	평해읍 학곡리 탑산골	시대미상	금폐
직산리사지	평해읍 직산리 탑산골	고려시대	금폐, 석탑

평해읍의 현존 사찰은 5개이다. 평해읍 지역의 불교 종단은 조계종과 사찰이 많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수진사가 있다. 현재의 수진사는 일제강점기까지 사세를 유지해 오다가 한때 폐사되었으나 1969년에 다시 중창하였다. 현재 불영사의 사세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현존하는 울진지역 사찰 가운데 각종 지리지나 읍지 등에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찰은 수진사가 유일할 정도이다. 수진사의 불전들이 모두 현대에 건축된 건물로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성보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고찰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수진사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53호로 지정된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가 유존하고 있다. 이 신중탱화는 제석·천룡탱화로서, 제석천과 천룡팔부중을 함께 그린 불화로 화기를 통해 1803년이라는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다.<sup>261</sup>

평해읍 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절터는 3개로 많은 편은 아니나, 수진사와 직산리 사지 사찰이 각각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일찍부터 불사가 왕성했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직산리사지에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삼층석탑이 남아 있어 마을 주민들이 탑돌이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도난 당하고 없다. 불교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수진사지의 수진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알 수 없고 지금의 사찰은 1963년

261. 문화재청,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16일

에 중건된 것이다. 석탑의 옥개석 1점, 석등의 지대석과 간주석의 일부가 남아 있다. 와편이나 남은 석조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듯하다.<sup>262</sup> 그러나 울진지역민들은 수진사가 신라 신문왕 때 창건되었다고 믿고 있다.

### (3) 북면

북면은 울진군의 북부에 있는 면이다.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곳곳에 응봉산(999m)·아구산(653m) 등이 솟아 있으며, 동해와 접한 동부 일대에는 200m 내외의 저산성 산지가 발달했다. 부구천이 면의 중앙을 지나 동해로 흘러들며, 하천 연안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행해질 뿐 평야의 발달이 매우 미약하다. 조·감자·고추 등과 감을 많이 생산하고, 연안에서는 맛이 좋은 자연산 미역이 채취된다.

덕구리에 덕구온천이 있다. 삼척·영덕을 잇는 국도가 해안을 따라 나 있으며, 부구리·덕구리까지 지방도가 면 중부를 가로지른다. 행정구역은 부구리·나곡리·검성리·주인리·덕구리·고목리·덕천리·하당리·상당리·두천리·사계리·소곡리 등 12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28개리]. 2019년 기준 면적은 142.6km<sup>2</sup>이고, 인구는 6,579명이다.

<표 145> 북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신광사	울진군 북면 덕구리 724	조계종	1983년
옥정사	울진군 북면 고목리 729	태고종	1954년
부국사	울진군 북면 부구리 1043	천태종	1972년
성주암	울진군 북면 주인리 467	미상	
성조사	울진군 북면 부구리1308	삼론종	조선시대(1994년 재창건)
불성사	울진군 북면 덕구리708-1	조계종	
흥륜사	울진군 북면 두천2리607	원효종	

262.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1쪽. 그러나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51쪽에는 1969년 3월에 종수하였다고 한다.

&lt;표 146&gt; 북면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주인리사지	북면 주인리 면전동	고려시대	삼층석탑, 석불좌상, 축대, 와편(장재사지)
고목리사지	북면 고목리 지장동	조선시대	금폐(옥정사지)
상당리사지	북면 상당리 절골	시대미상	금폐
봉전암터	북면 소곡리 절터골	〃	금폐
성조암터	북면 주인리 면전동	조선시대	금폐, 현재 성조암

북면은 면 단위로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편이다. 주변 인구가 많아야 불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찰이 많다고 불자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접근성이 편리해야 됨은 마땅한 사실이다. 도심이나 도시 주변부에 사찰이 많이 창건되는 까닭일 것이다. 주변 자연환경과 다수의 상주인구로 인해 북면에는 현존하는 사찰이 많은 편이다.

북면의 현존 사찰은 7개로 울진읍 다음으로 많다. 북면의 사찰 창건시기는 성조사를 제외하면 모두 현대에 창건된 사찰이다. 또 북면 지역의 불교 종단은 조계종·삼론종·원효종·태고종·천태종 등 다양한 종단의 사찰들이 유존하고 있다.

성조사는 성조암터에 재창건한 사찰이다. 『강원도지』에 의하면 '성조암은 북면 주인리에 있다. 숙종조에 각후사(覺後寺)를 창건하고 이 암자를 지었다. 지금은 절은 폐사되고 암자만이 남아있다.'<sup>263</sup>고 하였다. 성조암은 원래 각후사를 창건하고 각후사의 암자로 창건되었는데, 각후사는 폐사되고 성조암만 남아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조암이 숙종조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18세기 『여지도서』나 『범우고』, 19세기 전반의 『관동지』등에는 기록이 없고 일제강점기인 『조선환여승람』<sup>264</sup>과 『강원도지』<sup>265</sup>에는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조암은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 초기 사이에 창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면 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절터는 5개로 4개는 장재사, 옥정사, 봉전암, 성조암 등으로 사찰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나, 상당리사지의 사찰만 사찰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주인리사지에는 주인리 삼층석탑과 주인리 석불좌상이 남아 있는데 마모가 심하여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남은 유물로 보아 장재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sup>266</sup> 고목리사지에서는 조선시대 와편과 자기편이 소량 찾았지만 유구나 기타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마을에서는 옥정사의 원래 자리라 하지만 구릉 사이의 좁은 평지 등으로 볼 때 작은 암

263. 『강원도지』권5, 「사찰 울진」(강원도지간행소, 1941), 42쪽

264. 울진문화원, 2017, 앞 책, 44쪽

265. 『강원도지』권5, 「사찰 울진」(강원도지간행소, 1941), 42쪽

266.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9쪽

자가 자리했던 듯하다.<sup>267</sup> 그러므로 옥정사는 조선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성조 암터는 현재의 성조사이다.

봉전암과 상당리사지 사찰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북면 지역에서는 5개의 사찰이 창건되었다가 폐사되고 현재는 8개의 사찰이 존립하고 있다.

#### (4) 금강송면

금강송면은 울진군의 북서부에 있는 면이다. 본래 서면이었으나, 2015년 4월 금강송면으로 개칭되었다. 면의 전지역이 태백산맥에 속하여 500~1,000m 이상의 험준한 산지를 이룬다. 면내 곳곳에 오미산(1,071m)·진조산(908m)·통고산(1,067m) 등이 솟아 있다. 낙동강과 광비천이 광회리 일대에서 합류하며, 광천과 왕피천 및 그 지류들이 면내 곳곳을 흐른다. 고사리·더덕·참나물·취나물·두릅 등 산나물이 많이 생산된다. 특히 쌍전리는 고랭지채소·당귀, 왕피리는 고추·더덕, 삼근리는 감의 생산이 많으며, 전곡리는 봉화대추의 원산지이다.

과거 중석광산으로 유명했던 옥방광산은 1991년 현재 폐광상태에 있으며, 광회리에서 장석이 채굴된다. 불영사와 불영계곡이 대표적 관광지이다. 울진-봉화를 연결하는 국도가 면의 중앙을 동서로 지난다. 행정구역은 삼근리·하원리·왕피리·쌍전리·소광리·전곡리·광회리 등 7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12개리]. 2019년 기준 면적은 298.38km<sup>2</sup>이고, 인구는 1,312명이다.

<표 147> 금강송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불영사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0	조계종	신라시대
신계사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275-48	태고종	1989년
아미사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2-1	아미타종	2009년
용화사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107	조계종	1994년
구암사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87	〃	

267.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80쪽

&lt;표 148&gt; 금강송면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소광리사지	금강송면 소광리 절터골	시대미상	금폐
통고사지	금강송면 쌍전리 통고산	〃	금폐(쌍전리사지)
전곡리사지	금강송면 전곡리 절골	〃	금폐

금강송면의 현존하는 사찰은 5개로 불영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해방 이후 현대에 창건된 사찰이다. 금강송면 사찰의 소속 종단은 조계종·아미타종·태고종 등으로 조계종 사찰이 많은 편이다. 금강송면의 현존 사찰 가운데 사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사찰은 불영사·용화사·신계사 정도이다.

금강송면 전체가 태백산맥 내에 있어 상주인구는 많지 않지만,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다. 태백산맥의 청정한 자연에서 채취한 산나물은 관광객들에게는 보약 같은 먹거리를 얻을 수도 있는 곳이다. 더구나 울진지역에서는 유일한 고찰인 불영사가 있어 많은 불자가 내왕하고 있다. 불영계곡의 일부분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명승 제6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불영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사찰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고찰이다. 불영사 문화재로는 보물 3점, 유형문화재 4점, 문화재자료 1점 등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8점이 있다. 보물 3점은 울진 불영사 응진전(보물 제730호),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 불영사 영산회상도(보물 제1272호), 울진 불영사 불연(보물 제2127호) 등이다.

그 중에서 울진 불영사 불연((蔚珍佛影寺佛輦)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 사찰에 남아있는 불연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불영사 불연은 가마의 일종으로 사찰에서 시련의식(侍輦儀式)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현재 불영사에는 2채의 불연이 있는데, 매년 석가탄신날 아기부처를 모시고 경내를 도는 시련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이때 불연을 사용하고 있다.<sup>268</sup> 시련의식은 불영사의 축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 행사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점은 불영사 삼층 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울진 불영사 불汰(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8호),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3호) 등이며,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1점은 불영사 부도(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2호)이다. 그 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금강송면 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절터는 3개로 통고사지만 사찰 이름이 전해지

268. 심현용, 2005, 「불영사 불연」『미술자료』72·73, 국립중앙박물관, 123~124쪽

고 있으며, 창건 시기는 모두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지는 모두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지만 통고사지에는 석축의 일부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석축도 후대 화전민 촌의 일부로 추정된다<sup>269</sup>고 한다.

### (5) 죽변면

죽변면은 울진군의 동북부에 있는 면이다. 면 전체가 대체로 100m 이하의 낮고 평坦한 산지를 이루며, 동쪽은 동해에 면해 있다. 주요 산업은 수산업으로 오징어·꽁치·쥐치 등을 어획하며, 미역 채취도 이루어진다. 죽변항은 후포항과 더불어 울진군의 주요 어업중심기지이다. 농산물로는 쌀·감자·고구마 등이 생산된다.

후정·봉평 등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후정리와 화성리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향나무가 있다(천연기념물 제158호, 제312호)가 있다. 삼척·영덕을 잇는 국도가 면의 동부를 관통한다. 행정구역은 죽변리·후정리·화성리·봉평리 등 4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15개리]. 2019년 기준 면적은 18.34km<sup>2</sup>이고, 인구 6,656명이다.

<표 149> 죽변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죽청사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437	천태종	1970년
신흥사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839	조계종	
관음사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498-1	미타종	1998년

<표 150> 죽변면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화성리사지	죽변면 화성리 반정	고려시대	금폐, 주초석, 와편 (덕정사지)

죽변면의 현존하는 사찰은 3개로 모두 해방 이후 현대에 창건된 사찰로 소속 종단은 조계종·미타종·천태종 등으로 다양하다. 죽변면의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 그나마 사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사찰은 죽청사와 관음사이다. 죽청사는 천태종 사찰로 1965년에 천태종 죽변분회로 발족하였다가 1970년에 창건되었으며, 천태종 죽변분회로도 활동하고 있다. 1990년 11월 26일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관음전과 요사를 지었다. 죽청사 관음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기와지붕 구조이며, 주지는 승려 시용이다.

269.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84쪽

관음사는 죽변면 봉평 2리에 있으며, 대한불교 미타종파로 봉황산 밑에 자리 잡은 사찰로 1998년에 승려 운월이 창건하였다. 1998년 11월 10일에 대웅전과 삼성각을 건립하였다. 주지 운월이 미묘법으로 일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부터 전국의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죽변면 사지는 화성리사지 한 곳 뿐이다. 화성리사지는 고려시대에 덕정사가 창건되었다가 폐사되어 덕정사지라고도 한다. 사지의 흔적은 미흡하나 곳곳에 가공석이 남아 있고, 농로 및 논둑에서는 많은 양의 와편들이 찾아진다. 와편은 무문이 대부분이며 태선문도 소량 확인되고 있어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지되었던 사찰로 추정된다. 덕정사라는 사명이 전하는데, 골짜기 명칭도 사찰 이름에서 유래된 듯하다.<sup>270</sup>

#### (6) 후포면

울진군의 동남부에 있는 면이다. 서쪽 경계에 응봉산(389m)·마룡산(407m) 등이 솟아 있으며, 이는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져 동해와 접한다. 서부산지에서 발원한 소하천들이 동남류하여 동해로 흘러들며, 이들 연안에 약간의 경지가 전개될 뿐 평야의 발달은 미약하다. 대부분의 취락과 도로는 해안을 따라 분포한다. 주요 수산물로는 동해에서 광어·꽁치·대게·물가자미·오징어 등이 어획된다. 면내에 게맛살·통조림 등 해산물 가공공장이 있다.

동해안에 인접한 등기산에는 항로를 밝혀주는 후포등대가 있으며, 신석기 시대의 돌도끼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삼척·영덕을 잇는 국도가 면의 동부를 관통하며, 후포-울릉도 간 정기여객선이 비수기에는 격일제로, 성수기에는 매일 운항한다. 행정구역은 삼률리·후포리·금음리 등 3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15개리]. 2019년 기준 면적은 22.17㎢이고, 인구는 7,619명이다.

<표 151> 후포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후포광도사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40-3	조계종	1952년
후포원불교	울진군 후포면 후포5리 1003-8	원불교	
후포포교당	울진군 후포면 삼률리 537-1	천태종	동해사
용궁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289-33		
청명사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844		

27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36쪽

&lt;표 152&gt; 후포면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후포리사지	후포면 후포리 절골	조선시대	금폐
삼율리사지	후포면 삼율리 절골	시대미상	금폐
금음리사지	후포면 금음리 산85(만산)	〃	금폐

후포면의 현존하는 사찰은 5개로 모두 해방 이후 현대에 창건된 사찰로 소속 종단은 조계종·천태종·원불교 등이다. 후포항은 죽변항과 더불어 울진군의 주요 어업중심기지이다. 죽변면의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 바다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찰은 용궁사, 동해사이다. 후포면의 특성상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불사가 이들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찰의 명칭이 주는 의미가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포면의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 그나마 사적이 알려진 사찰은 광도사 뿐이다. 광도사는 70여 년 전인 1952년에 창건된 사찰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62호로 지정된 울진 광도사 신중도(蔚珍廣度寺神衆圖)가 봉안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훼손이 심한 편이나, 화기를 통해 불영사에서 가져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화의 양식과 시주자명을 통해 19세기 중반 경으로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sup>271</sup> 또 광도사에

는 1631년(인조 9)에 제작된 목판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1책이 소장되어 있다. 광도사가 비록 현대 시기에 창건되었으나 문학재적 가치가 있는 성보를 봉안한 사찰이다.

후포면 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절터는 3개로 사명은 모두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창건시기도 후포리사지만 확인이 되고 있다. 후포리사지는 후포리 실배마을 뒤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짜기 주변에서 토기편을 비롯해서 와편, 자기편 등이 소량 수집된다. 수집된 와편은 무문편으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된다.<sup>272</sup> 따라서 후포리사지에는 조선시대에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암자터로 추정되는 삼율리사지에 우물이 있기는 하나 다른 유구의 흔적은 미미한 편이



&lt;그림 43&gt; 후포 광도사

271. 문화재청, 「울진 광도사 신중도」,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16일

272.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38쪽

다.<sup>273</sup> 또 금음리사지는 만산마을과 주변 일대에서 와편이 확인되고 건축재로 보이는 석재들이 산재하지만 마을과 경작지가 들어서서 사지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sup>274</sup>

#### (7) 근남면

근남면은 울진군의 중부에 있는 면이다. 면의 북·서·남쪽은 금산(387m)·천축산(653m)·남수산(438m)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은 동해에 면해 있다. 태백산맥에서 발원하는 광천과 왕피천이 각각 면의 서부와 남서부에서 흘러들어 노음리에서 합류한다. 본류인 왕피천 하류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했다. 논농사가 중심이며, 특산물로 마늘이 생산된다.

구산리의 성류굴을 비롯하여 울진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불영계곡,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 등 명승지가 많다. 농업은 물론 상업과 공업도 발달했다. 구산리에 두전광업소·울진제지가 가동중에 있다. 행정구역은 노음리·수산리·행곡리·수곡리·구산리·진복리·산포리 등의 7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20개리]. 2019년 기준 면적은 57.82km<sup>2</sup>이고, 인구는 2,268명이다.

<표 153> 근남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해광사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45	천태종	
용궁사고구려촌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1505	미상	
자황사	울진군 근남면 행곡3리 994-2	자황종	2010년

<표 154> 근남면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구산리사지	근남면 구산리 탑평동	통일신라	삼층석탑, 석등재, 주추석, 기단 석렬, 금동불상, 인화문 토기, 중국동전(청암사지)
배잠사지	근남면 구산리 외성산동	고려시대	당간지주, 석탑재, 와편
성류사지	근남면 구산리 성류산	통일신라	금폐
천량암터	근남면 행곡리 천량산골	〃	금폐
대천사지	근남면 노음리 오로동	〃	금폐 삼층석탑 동림사 이건(1963년)
검산사지	근남면 행곡리 검산중허리	시대미상	금폐, 주초석, 와편
월출암터	근남면 행곡리 검산사서쪽	〃	금폐

27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위 책, 338쪽

274.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위 책, 339쪽

근남면은 상주인구는 적지만 성류굴과 소금강이라 불리는 불영계곡,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 등 명승지가 많아 전통시대에 사찰 창건이 활발하게 이루진 지역이다. 근남면은 현존하는 사찰보다 전통시대에 창건되었던 사찰이 더 많은 지역이다. 현존하는 사찰은 3개이나 전통시대에 창건되었던 사찰은 7개이다. 전통시대 사찰 가운데 4개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1개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들 전통사찰의 사지에는 지정문화재가 잔존하여 과거 이 지역의 왕성한 불교 활동을 엿볼 수 있다.

근남면 현존 사찰의 소속 종단은 천태종, 자황종 등이다. 현존하는 사찰의 창건 시기는 모두 해방 이후 현대에 창건되었다.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 단편의 사적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은 자황사 뿐이다. 자황사는 근남면 행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에 창건하였다. 천진사에서 5년 동안 수행하던 자승이 사찰을 지으면서, 천축산을 아버지로 하고 매봉산을 아들로 보아서 '자황사'라는 이름을 사찰명으로 하였다.

근남면 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절터는 7개로 모두 사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창건 시기는 검산사지와 월출암터만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사찰은 창건시기가 확인이 되고 있다.

구산리사지는 구산3리 탑들마을 일대로 구전에는 청암사터라고 알려져 있다. 주변의 민가에서도 치석재들이 쉽게 찾아지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사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구산리사지에는 보물 제498호로 지정된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蔚珍九山里三層石塔)을 비롯하여 구산리 석등재(九山里石燈材) 등의 석조물 등이 남아있다.<sup>275</sup> 사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금동불상, 중판 타날문양 평기와, 인화문 토기편 등이 출토되어 청암사의 창건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되었다. 특히 청암사지에서 출토된 인화문 토기편으로 청암사는 7세기 후반에 창건된 사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sup>276</sup>

배잠사지는 근남면 구산리 외성산동[바깥잘미]에 위치하고 있다. 산에 접한 경작지에는 탑 부재가 남아 있고 동편 건너편 밭에는 당간지주가 있다. 구전에 배잠사라는 절이 있었고, 삼층석탑이 있었으나 분실되고 현재는 기단 갑석으로 보이는 부재만 남아 있다.<sup>277</sup> 또 배잠사지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2호인 배잠사지 당간지주가 있다.

성류사지는 근남면 구산리 성류굴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문왕의 아들 보천태자가 성류굴에서 수도한 후에 이 곳에 성류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이 성류사에서 일박을 한 일이 있다고도 전해진다.<sup>278</sup>

천량암터는 근남면 행곡2리 천정동마을 건너편 백연봉 동남쪽 청량산골 암벽 사이에 있는 석굴이다. 원효대사가 주석할 때 굴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쌀 2되가량의 양식이 나와 천

275.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92쪽

276. 심현용, 2014, 「울진 불영사의 창건과 응진전」『박물관지』20,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50~51쪽

277.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93쪽

278.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56쪽

량암이라 하였는데, 그 후 욕심 많은 빈승이 쌀이 더 많이 나오라고 구멍을 크게 뚫었더니 다시 쌀이 나오지 않았다<sup>279</sup>고 전해지고 있다.

대천사지는 근남면 노음리 탑들에 위치하고 있다. 이 탑들 경작지 일대가 대천사가 있었던 자리이다. 대천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폐사되었고 들 중앙에 탑만 남아 있던 것을 1963년에 동림사로 이전하였다.<sup>280</sup> 대천사지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는 신라 석탑양식을 잘 계승한 고려시대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불영사 삼층석탑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8) 온정면

온정면은 울진군의 남부에 있는 면으로, 사방이 백암산[1,004m]·칠보산[810m]·마룡산[407m]·금강산[849m]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대천과 소대천이 면내를 흐르며, 이들 연안을 따라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주요 농산물은 쌀이며, 특용작물로 잎담배·고추·산나물 등이 생산된다.

온정리 백암온천이 유명하며, 온정리와 소태리에는 대한석탄공사연수원·포항제철연수원 등 기업체 연수원이 있다. 포항-삼척을 잇는 국도와 연결되는 지방도가 면내를 가로지른다. 행정구역은 소태리·온정리·덕산리·금천리·광풀리·선구리·외선미리·조금리·덕인리 등 9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22개리]. 2019년 기준 면적은 131.83km<sup>2</sup>이고, 인구는 1,791명이다.

<표 155> 온정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광흥사	울진군 온정면 덕산1리 1135	조계종	신라시대
보광사	울진군 온정면 금천2리 958	〃	1972년
백련암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357	미상	
백문사	울진군 온정면 소태2리 580-1	천태종	1990년

279. 『여지도서』상, 「울진현 사찰」(탐구당, 1973), 562쪽

28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87쪽

&lt;표 156&gt; 온정면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온정리사지(傳)	온정면 온정리 독점골	조선시대	금폐(심수사지)
계조암터(傳)	온정면 소태리 단하동	〃	금폐, 와편
선암사지(傳)	온정면 조금리 선암사골	고려시대	금폐
백암사지(傳)	온정면 소태리 백암산뱀골	〃	금폐
통제암터	온정면 백암온천 부근	시대미상	금폐



&lt;그림 44&gt; 온정면 보광사



&lt;그림 45&gt; 온정면 광홍사

온정면은 금강송면과 더불어 울진군에서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이다. 온정면은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였으며 하천이 발달하여 벼농사와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상주인구는 적은 편이다. 온정면의 현존 사찰은 4개이며 소속 종단은 조계종, 천태종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광홍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광복 이후 현대에 창건된 사찰이다. 광홍사를 제외하면 알려진 사적이 없다.

광홍사는 온정면 덕산리에 위치하며,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홍사에는 지정문화재가 2점 있는데, 울진 광홍사 소장 명양경(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80호)과 울진 광홍사 판벽화 및 기타부재(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0호)이다. 그 외에도 광홍사에는 고려시대 석탑 부재와 조선후기 부도군이 있다.

울진 광홍사 소장 명양경은 물과 물에서 살다 죽은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천도하여 극락왕생하게 하기 위해 지내는 의식인 수륙재의 의식과 절차를 수록한 것이다. 의식에 필요한 절차의 요점만을 뽑아 정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찬하였다. 판본은 1538년(중종 33) 안동 광홍사 판각본의 인본이다. 이 책은 다른 판본에 수록되지 않은 부록 12장이 들어 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 불교의례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전래되는 간본 가운데 비교적 초기간본이다.<sup>281</sup>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는 광흥사 대웅전의 벽화부재[2건 19점]와 기타부재[1건 4점]이다. 불전이 해체되면서 내부 빗천장에 그려진 주악천인도와 운룡도, 그리고 기타의 묵서명문(墨書銘文) 부재 등이 수습되었는데, 묵서를 통해 1770년에 ‘부일(富一)’이란 화승이 그렸음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경상북도 일대의 주불전에 주악천인도와 운룡도가 그려진 사례는 빈번하지만, 제작 시기나 제작자가 알려진 것은 없다.<sup>282</sup> 이러한 의미에서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석탑 부재는 광흥사 입구 담장에 2개의 갑석과 옥개 석편이 쌓여져 있다. 광흥사 내의 석탑재로 보이나 석탑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또 광흥사에는 4기의 부도와 2기의 비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부도 1기는 근년에 조성한 것이다. 3기의 부도는 기암당·완하당·일명선사부도로 종형이며 상륜부와 탑신석이 한 돌로 되어 있다.<sup>283</sup> 부도비는 완하당대사[1809]와 기암당대선사[1830]의 것이다.

온정면 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절터는 5개로 모두 사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창건 시기는 선암사와 백암사는 고려시대이고 심수사와 계조암은 조선시대에 창건되었다. 통제암은 창건 시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온정리사지는 온정면 온정리 독점골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심수사의 절터이다. 심수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평해군 불우조에 기록되고<sup>284</sup> 이후의 사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조선전기에는 창건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온정리사지 주변과 산사면 아래로 많은 양의 와편이 수습되는데, 다른 사지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와편은 조선 후기에서 근대의 것으로 추정된다<sup>285</sup>고 하였다.

계조암터는 온정면 소태리 단하동에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계조암은 선암사 뒤편에 있고 규모는 6칸이라 하였으며, 삼면이 암벽으로 이루어져서 남쪽 한 곳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였다.<sup>286</sup> 계조암은 임진왜란 이후 선암사의 작은 암자로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암사지는 온정면 조금리 선암사골에 있다. 선암사지의 선암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범우고』, 그리고 19세기 초반의 『관동지』까지는 유존하는 사찰로 기록되고 있으나, 19세기 말엽의 『평해군읍지』에는 폐사로 기록되었다가 일제강점기 『조선환여승람』에 다시 기록되고 있다. 선암사는 고려시대에 창건하여 조선후기

281. 문화재청, 「울진 광흥사 소장 명양경」,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16일

282. 문화재청,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16일

283. 심현용, 2005, 「석조물로 본 울진지역 불교문화」『박물관지』11,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110~112쪽

284. 이행 외, 1996, 앞 책, 547쪽

285.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25쪽

286. 『여지도서』상, 「평해군 사찰」(탐구당, 1973), 543쪽

19세기 전반까지는 사세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폐사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다시 중창하였으며, 해방 이후 또다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암사의 규모는 『여지도서』에 43칸이었으나<sup>287</sup> 『평해군읍지』에는 24칸이고 지금은 없다<sup>288</sup>라고 함을 보아 사세가 점차 미약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백암사지는 온정면 소태리 백암산뱀골에 위치하고 있다. 백암사지의 백암사는 고려시대에 창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까지는 유존하였으나 『여지도서』에는 기록이 없고, 『범우고』와 『관동지』에는 폐사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환여승람』과 『강원도지』에 다시 기록되었다가 해방 이후 또다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 (9) 기성면

기성면은 울진군 중남부에 있는 면이다.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이며, 정명천과 황보천 연안에 좁은 평야가 발달해 있다. 취락과 도로는 하안과 해안을 따라 분포한다. 고추 생산이 많으며, 연안에서는 오징어·방어가 잡히고 자연산 김을 비롯하여 미역·해삼·성게 등이 채취된다.

구산리에 구산해수욕장과 사동리에 해월종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56호], 황보리에 노동서원 등의 명승고적이 있다. 행정구역은 척산리·기성리·사동리·망양리·삼산리·방률리·이평리·다천리·정명리·황보리·구산리·봉산리 등 12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24개리]. 2019년 기준 면적은 98.56㎢이고, 인구는 2,636명이다.

<표 157> 기성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신불사	울진군 기성면 구산봉산로 251-140	조계종	
기성포교당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791	천태종	
산하백암사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442	정토종	1995년
영명사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산 68	태고종	2003년
구룡사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808번지	미상	

287. 『여지도서』상, 『평해군 사찰』(탐구당, 1973), 543쪽

288. 울진문화원, 2017, 앞 책, 204쪽

&lt;표 158&gt; 기성면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이평리사지	기성면 이평리 심수리절골	고려시대	금폐, 와편
망양리사지	기성면 망양리 현종산하	시대미상	금폐

기성면의 서쪽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동쪽 해안을 따라 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상주인구는 많지 않으나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기성면의 현존 사찰은 5개이며 소속 종단은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정토종 등으로 다양하다. 기성면의 현존 사찰은 모두 현대에 들어와서 창건되었으며, 사찰의 사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영명사는 대형 불상으로 시선을 받고 있다. 영명사는 기성면 사동리 산 68번지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의 주지 원명이 창건하였다. 영명사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미타여래 좌불상과 대형 와불이 있다. 18m의 좌불상은 좌대를 빼고 나면 금불상의 높이는 12m이다. 이 대불은 1년에 한 바퀴 360도 회전한다고 한다. 또 불상 조성을 위한 개토제를 지낼 때 세 마리의 학이 날아와 제가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주변을 날며 지켜주는 길조도 보였다고 한다.

기성면에서 창건되었다가 폐사된 사찰은 이평리사지와 망양리사지 2곳이다. 이평리사지는 기성면 이평리 상심수리 마을 절골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사지일대에서 와편과 자기편들이 수습되고, 논둑 곳곳에 천석이 확인된다. 사지로 확정할 유구는 찾았지 않으나 예전부터 ‘절터’로 불려왔고 이 골짜기를 ‘절골’로 부르고 있다. 수습되는 와편으로 보아 이평리사지에 존재하였던 사찰은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89</sup> 망양리사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 (10) 매화면

매화면은 울진군의 중부에 있는 면이다. 본래 원남면이었으나, 2015년 4월 매화면으로 개칭되었다. 대체로 100~500m의 산지를 이루며, 면의 동쪽은 동해, 서쪽은 태백산맥과 접한다. 매화천이 남부 산지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며, 이곳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행해진다. 특용작물로 도라지가 많이 나며, 천궁과 같은 약용작물도 재배된다. 양양·포항을 잇는 국도가 면의 동부를 지난다. 행정구역은 매화리·금매리·오산리·덕신리·신흥리·기양리·갈금리·길곡리 등 8개리가 있다[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16개리]. 2019년 기준 면적은 101.58km<sup>2</sup>이고, 인구는 2,086명이다.

289.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19쪽

&lt;표 159&gt; 매화면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종단	창건시기
오봉사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209	삼론종	

&lt;표 160&gt; 매화면 사지 현황

사지명	소재지	시대	비고
길곡리사지(傳)	매화면 길곡리 오봉골	시대미상	금폐, 주초석, 와편(오봉사지)
광대사지(傳)	매화면 길곡리 광대골	고려시대	금폐, 주초석, 장대석, 석탑부재, 삼층석탑 경주박물관 이건
덕신리사지(傳)	매화면 덕신리 항곡동	통일신라	금폐, 와편(신흥사지)
기양리사지	매화면 기양리 절골	조선시대	금폐
갈면리사지	매화면 갈면리 절터골	시대미상	금폐
관음사지	매화면 매화리 가람질골	〃	금폐
오산리사지	매화면 오산리 무릉동	〃	금폐, 토기편

매화면은 울진군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금 특이하다. 매화면에 현존하는 사찰은 오봉사 단 하나만 있으나, 사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폐사지는 7개로 근남면과 더불어 가장 많다. 폐사지를 보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찰이 창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매화면은 오히려 전통시대에 사찰 창건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길곡리사지·광대사지·덕신리사지·관음사지는 사찰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길곡리사지는 매화면 길곡리 오봉골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 사사불당이 건립되어 사지 일대를 관리하고 있다. 사지에 오봉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만 뚜렷한 사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sup>290</sup> 오봉골이라는 지명이 오봉사가 이곳에 존재하였으므로 지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오봉사와는 상관이 없는 듯하다. 덕신리사지는 매화면 덕신리 항곡동 물방아골에 위치하고 있다. 사지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지만 사지의 흔적은 미약하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신흥사의 터라고 한다.<sup>291</sup>

광대사지는 매화면 길곡리 광대골에 위치하고 있다. 사지 일대에서 많은 양의 기와편과 자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전연에 의하면 광대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이라 전하나 근거는 찾을 수 없다.<sup>292</sup> 사지에 있던 삼층석탑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29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310쪽

291.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03쪽

292.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10쪽

기양리사지는 매화면 기양리 곰시골에 위치하고 있다. 사지 일대 밤나무 숲에서는 와편과 토기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지만 뚜렷한 유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와편이나 자기편 등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에 존립하였던 듯 보인다.<sup>293</sup>

오산리사지는 매화면 오산리 무릉동 서쪽 대밭골과 범골들 사이의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 사지 일대에서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된다. 마을에서는 신라 말에 도승이 와서 작은 절을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지형으로 보아 작은 암자가 자리했던 듯하다.<sup>294</sup>

갈면리사지와 관음사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 울진지역 읍·면별 사찰 현황을 현존 사찰과 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울진 지역 현존 사찰의 소속 종단 현황과 현존 사찰 및 폐사의 읍·면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1> 울진군의 종단 현황

종단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삼론종	원불교	원효종	정토종	미타종	아미타종	자황종	미상	계
수	17	7	3	2	2	1	1	1	1	1	10	46

울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찰의 수는 2020년 현재 46개이다. 이들 사찰이 소속된 종단의 수는 10개이며, 이중에서 조계종이 1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천태종, 태고종 순이다.

<표 162> 울진지역 사찰과 사지 현황

지역	울진읍	평해읍	북면	금강송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근남면	기성면	매화면	계
사찰	8	5	7	5	4	3	5	3	5	1	46
사지	6	3	5	3	5	1	3	7	2	7	42
계	14	8	12	8	9	4	8	10	7	8	88

울진지역의 현존 사찰은 울진읍이 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면·평해읍·금강송면·후포면·기성면 순이다. 매화면은 현존 사찰이 한 곳으로 가장 적다. 사지는 근남면과 매화면이 7개로 가장 많고 울진읍·북면·온정면 순이다. 그리고 현존 사찰과 사지에 있었던 사찰까지 합하면 울진읍이 1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면·근남면·온정면·평해읍·금강송면·후포면·매화면·기성면 순이며, 죽변면이 4개로 가장 적다. 울진군 지역의 현존하는 사찰과 폐사된 사찰은 모두 88개이다.

29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01쪽

294.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301쪽

### 3) 문화재 현황

울진군에는 불영사를 제외하면 고찰이 없다. 그러므로 불교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울진군의 불교 문화재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보물 4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6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점 등 모두 14점이 전부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점이 불영사에 있다. 불영사는 보물 3점, 유형문화재 4점, 문화재자료 1점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이다. 또 광흥사에 유형문화재 2점, 수진사와 광도사에 문화재자료 각 1점, 그리고 구산리사지[청암사지]에 보물 1점, 배잠사지에 문화재자료 1점이 유존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자체도 적지만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지정문화재 가운데 석탑, 부도, 불상, 불화는 대부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나머지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만한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찰 건축으로 지정문화재가 된 불영사 응진전(보물 제730호), 불영사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과 울진 불영사 불연(보물 제2127호),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동림사 대웅전을 살펴보고, 기타 문화재로는 지정문화재인 배잠사지 당간지주(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2호)와 울진 불영사 불패(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 울진 광흥사 소장 명양경(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80호),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인 불영사 석구, 불영사 배례석(봉로대), 청암사지 석등재, 불영사 법고, 불영사 국기 현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울진군의 불교 관련 지정문화재는 다음과 같다.<sup>295</sup>

<표 163> 울진군의 불교 관련 지정문화재

분류명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물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제498호	근남면 구산리
	울진 불영사 응진전	제730호	금강송면 하원리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제1201호	〃
	불영사 영산회상도	제1272호	〃
	울진 불영사 불연	제2127호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불영사 삼층석탑	제135호	〃
	울진 불영사 불패	제397호	〃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	제423호	〃
	울진 광흥사 소장 명양경	제480호	온정면 덕산리
	울진 광흥사 판벽화 및 기타부재	제520호	〃

295. 문화재청, 「문화유산통합검색」,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분류명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불영사 부도	제162호	금강송면 하원리
	배잠사지 당간지주	제472호	근남면 구산리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	제553호	평해읍 오곡리
	울진 광도사 신중도	제662호	후포면 후포리

### (1) 사찰 건축

사찰은 불상을 모시고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불도를 닦고 교법을 설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로 신앙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불전의 명칭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사찰 불전 가운데 가장 많은 대웅전을 비롯해서 대웅보전·조사당·응진전·대적광전·화엄전·비로전·명부전·지장전·나한전·아미타전·극락전·무량수전·관음전·원통전 등이다. 이외에도 사찰에는 약사전·영산전·용화전·산신각·칠성각·독성각·삼성각·누각·산문 등의 불전이 있다. 울진지역 사찰의 대표적인 불전 몇 가지만 살펴보자.

#### ① 불영사 대웅보전(佛影寺大雄寶殿)

불영사 대웅보전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에 있는 중심 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기와지붕 구조이다. 기단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무사석을 크기에 따라 적절히 쌓아 자유롭게 조성하여 조선 중기 이후의 기풍을 간직하고 있다.

중앙의 석계 좌우 기단 밑에는 귀부형의 돌거북이 1구씩 놓여 있는데, 상반신만 노출되어 마치 불영사 대웅보전을 짊어지고 베티고 있는 듯하다. 이는 풍수도참에서 연유된 것으로, 사전(寺傳)에 의하면 불영사가 있는 자리가 화산(火山)이라 불기운을 누르기 위해 물의 신인 거북을 모신 것이라 한다.

자연석 주초 위에 흘림이 있는 원주를 세웠는데, 원주는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도록 다듬지 않고 대략 형태만 이루게 한 18세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기둥에는 벽선을 세우고 문얼굴을 만들어 정중한 맛을 잃지 않았다. 문짝은 어칸[御間]에 사분합을, 좌우 협간에 분합문을 달았다. 측면은 벽체로 마감되었으나 드나들기 쉬운 자리에 문을 내었다.

공포(拱包)는 외3출목 내4출목의 다포계이다. 단청은 금단청 계열에 속하는데, 외부 단청은 최근에 개칠하여 본 모습을 잃었으나 내부는 잘 남아 있어 18세기 영남 지역, 특히 안동 봉정사(鳳停寺) 대웅전의 격조 높은 기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천장의 청판을 처리한 기법이 고급스럽고, 별지화와 벽화 역시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다.<sup>296</sup>

296.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82쪽

조선 중기의 특징을 고루 지니고 있는 불교 건축물로, 구조 수법이나 기단 밑에 있는 돌거북·단청 등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불영사 대웅보전의 건립 연대는 법당 내에 있는 탱화[幀畫]가 1725년(영조 1)에 제작된 것으로 미루어 건물도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영사 대웅보전은 1994년 5월 2일에 보물 제1201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46> 불영사 대웅전

## ② 불영사 응진전(佛影寺應眞殿)

불영사 응진전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에 있는 조선 중기 불전으로, 1984년 불영사 응진전 해체 보수 때 발견된 상량문에 따라 1578년(선조 11)에 영산전(靈山殿)으로 건립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응진전은 불영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이다.

응진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아담한 다포계 맞배기와집이다. 특히 공포(拱包)가 건물의 측면에도 돌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면에는 중앙 칸에 출입을 위한 분합문을, 양협칸 높은 곳에는 살창을 달았다.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에는 오금을 많이 주었다. 기둥 위에는 내외 2출목의 공포를 얹었다. 공포의 양식 중 쇠서가 쳐졌고, 교두형 첨차 형태로 볼 때 조선 중기의 다른 건물과 다름이 없다.

내부 중앙에는 우물천장을 가설하였고, 외부 둘레에 빗천장을 가설하였다. 불단은 별다른 장식 없이 소박하게 가설되어 있어 내부 공간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단청은 외부는 거의 훼손되었으나 안쪽은 아직 잘 남아 있어 조선 중기의 단청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조선 중기적 특징을 보이나 첨차 및 쇠서 등 조선 전기적 수법이 잘 남아 있고, 가구(架構)의 결구(結構) 방법도 치밀하게 꾸몄다. 특히 내부에는 빗반자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다. 집의 구조로 보아 당초에는 팔작지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언제 맞배지붕으로 변형되었는지 알 수 없다.<sup>297</sup>

전체적으로 조선 중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첨차 및 쇠서 등의 세부 수법에서는 조선 전기의 수법이 혼용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불영사 응진전은 1981년 7월 15일에 보물 제730호로 지정되었다.

### ③ 동림사 대웅전(東林寺大雄殿)

동림사 대웅전은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동림사에 있는 조선 후기 불전이다. 1951년 8월에 폐사된 동림사 건물을 불영사 주지 전용호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포교당으로 창건한 후 1952년 10월 승려 박기종이 다시 동림사로 승격시켰다. 동림사 대웅전은 원래 울진읍 대흥리에 있던 대흥사(大興寺) 대웅전으로서 숙종 7년(1681)에 건립되었다. 수십 년 동안 폐사로 방치되어 도괴 직전에 당면한 대흥사 대웅전을 신도인 장상진(張相軫)이 사재로 1963년 3월에 동림사로 이전하였다.<sup>298</sup>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기와지붕이다. 공포(拱包)는 외3출목, 내4출목의 다포 구조으로, 쇠서는 외단이 양서형에 연봉을 붙인 형태이고, 내단은 연봉을 조각한 조선 후기적 수법이다. 대웅전의 구조는 일반적인 중대 공수법과 달리 대들보 위에 장형과 평방형 부재를 ‘정(井)’자형으로 결구하였고, 외2출목, 내2출목의 공포로, 종도리와 중도리를 결구하였다. 동림사 대웅전의 중대공 결구법은 운문사 대웅보전, 영지사 대웅전 등 영남 지방 몇몇 주 불전에서만 보이는 구조 수법으로, 시기 및 지역, 공장(工匠) 간 관계성이 주목되는 건축물이다.

대웅전 벽화나 쳐마기등 곳곳이 부식되고 퇴락하고 있어 시급하게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림사 대웅전과 대웅전 내의 탱화 3점 및 경내의 삼층석탑은 오랜 역사 를 지닌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sup>299</sup>

## (2) 기타 문화재

### ① 배잠사지 당간지주(盃岑寺址幢竿支柱)

배잠사지 당간지주[일명 울진 구산리 당간지주(蔚珍九山里幢竿支柱)]는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배잠사지 삼층석탑이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 논 한가운데에 위치

297. 심현용, 2014, 앞 논문, 71~73쪽

298. 울진문화원, 1998, 앞 책, 42~43쪽

299.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림사 대웅전」,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2일

한다. ‘구산리 당간지주’로 알려진 배암사지 당간지주는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양 지주가 마주 보고 서 있다. 양 지주는 71cm의 간격을 두고 주축방향 남북으로 마주 서 있다. 양 지주 높이는 동일하지 않고 내·외부에는 장식이 없으며, 지주부는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가늘게 치석하고 정상부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죽임을 하였다. 또 각 모서리를 깎아 모죽임을 하여 약간의 장식적인 의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양 지주의 정상부 안쪽 상단에는 방형의 간구를 뚫어서 간주를 중앙에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크기는 북쪽 지주가 현재 높이 177cm, 안쪽면의 하폭 38cm, 중폭 38cm, 상폭 33cm이고 두께[앞면]는 28cm이며, 간구는 깊이 30cm, 너비 10cm이다. 남쪽 지주는 현재 높이 186cm, 안쪽면의 하폭 35cm, 중폭 35cm, 상폭 34cm이고 두께[앞면]는 28cm이며, 간구는 깊이 27cm, 너비 9cm이지만 간구부분이 파손되었다.

현재 기단부와 간대부는 땅속에 묻혀 있어 확인할 수 없으나, 주민에 의하면 현 지표에서 30cm정도 아래에 화강암으로 만든 판석이 있는데,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지주를 세웠다고 한다.

이 지주는 전체적으로 돌을 다듬은 정(丁)자국이 다수 보이는 등 치석도 고르지 못하며 조식이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단아하고 둔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형태에서 많이 퇴화한 일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작 시기는 고려 후기로 추정된다. 2004년 10월 14일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2호로 지정되었다.<sup>300</sup>

## ② 울진 불영사 불패(蔚珍佛影寺佛牌)

불패는 부처님이나 스님을 모시는 위패(位牌)로 주로 경서, 불·보살의 명호, 승려의 법명이나 발원 내용 등을 적어 놓은 패를 말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내용이 적힌 패를 연화대 위에 놓는 것인데, 패 주위를 구름 모양이나 보주형 등으로 조각하고 그 안에 꽃·용·구름 등으로 화려하게 조각한다.

불영사에는 불패 2기가 대웅보전 안에 있다. 불패 1은 좌대와 패신으로 나누어지는데, 패신 앞면에는 ‘우순풍조 국태민안(雨順風調 國泰民安)’이라는 글자[원래 한글로 적혀 있었음]가 적혀 있으며, 액자 주위로는 황용과 운문 등 화려한 문양을 장식하였으며, 크기는 높이 71.8cm×폭 40.5cm이다. 불패 2는 좌대는 결실[현재 복원됨]되고 양련대와 패신만 남아 있는데, 중앙의 액자에는 명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위로 봉황, 운문과 꽃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크기는 높이 34cm×폭 24.2cm이다. 불패 1의 패신 뒷면에는 불패를 조성하게 된 발원문이 묵서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불보살의 명칭을 적은 불패(佛牌) 3위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패(殿牌) 3위를 조선 숙종 4년(1678)에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2점만이

300. 심현용, 2008, 앞 논문, 181~182쪽

남아 있다. 2007년 1월 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8호로 지정되었다.<sup>301</sup>

### ③ 울진 불영사 불연(蔚珍佛影寺佛龕)

불영사에는 2채의 불연이 있는데, 매년 석가탄신일때 아기부처를 모시고 경내를 도는 시련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이때 이 불연을 사용하고 있다.

불연 1의 받침대 하부에는 조련기가, 불연 2의 받침대 하부에는 시주질이 묵서되어 있는데, 이 명문들에 의해 불연의 제작시기와 제작동기, 공역에 참가한 시주자와 승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불연 1의 크기는 높이 125cm×난간폭 86cm×길이 311cm이며, 불연 2는 높이 125cm×난간폭 80cm×길이 303cm이다. 형태는 전체적으로 나간을 두른 집모양으로 받침대, 몸체, 지붕으로 분리되게 조립하였다. 받침대는 누각의 난간과 같은 형태이며, 앞뒤에 두개씩의 손잡이를 만들었고 난간 모서리에는 용머리를 각각 장식하였다. 몸체는 창이 있는 벽체를 돌렸으며, 벽체에는 화려하게 여러 가지 꽃을 조각하였다. 지붕은 녹색비단으로 처리하였으며, 상부에는 연봉을 세워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 불연들은 1670년(현종 11)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불영사 불연은 제작연대가 있어서 유물양식의 편년을 설정할 수 있고 시주질(施主秩)을 통하여 불영사의 알려지지 않은 승려의 계보 등을 알 수 있어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특히 조각수법이 정교하며 현재 까지 알려진 불연 가운데 연대가 알려진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2007년 1월 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지정되었다.<sup>302</sup>

### ④ 울진 광흥사 소장 명양경(蔚珍廣興寺所藏冥陽經)

명양경은 물과 물에서 살다 죽은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천도하여 극락왕생하게 하기 위해 지내는 의식인 수륙재(水陸齋)의 의식과 절차를 수록한 것이다. 의식에 필요한 절차의 요점만을 뽑아 정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찬하였다. 판본은 1538년(중종 33) 안동 광흥사 판각본의 인본이다. 이는 세종의 딸 정의공주(貞懿公主)가 남편인 양효공 안맹담(良孝公 安孟聃)[1415~1462]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예종 1년(1469) 6월, 「수륙의문」, 「결수문」, 「소미타참」, 「묘법연화경」을 간행한 바 있는데 그 번각(翻刻)으로 추정된다. 명양경에는 다른 판본에 수록되지 않은 부록 12장이 들어 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 불교의례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전래되는 간본 가운데 비교적 초기간본이다. 2013년 8월 19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80호로 지정되었다.<sup>303</sup>

301. 심현용, 2005,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료 고찰」『불교고고학』5, 위덕대학교 박물관, 22~23쪽

302. 심현용, 2005, 「불영사 불연」『미술자료』72·73, 123~127쪽

303. 문화재청, 「울진 광흥사 소장 명양경」,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16일

### ⑤ 불영사 석구(佛影寺石龜)

불영사 석구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대웅보전 기단하부 좌·우[동·서]에 2구를 머리, 발, 어깨부분만 노출되도록 배치하였다.

크기는 좌우가 거의 같고 모두 마모가 심하며, 불에 탄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다. 발은 기단 밑에서 기어 나오는 형상으로 발가락은 4개이며, 머리 윗면에는 도넛 모양의 원형이 양각되어 있다. 등에는 서쪽 것은 이중 육각문을, 동쪽 것은 당초문을 양각하여 세부문양에서 차이가 난다. 크기는 서쪽의 것은 머리직경 34.2cm, 머리에서 목까지 길이 57.4cm, 귀갑에서 노출된 부분까지의 길이 22.2cm이고, 동쪽의 것은 머리직경 33.6cm, 머리에서 목까지 길이 49.6cm, 귀갑에서 노출된 부분까지 길이 24.2cm이다.

제작 시기는 불영사가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651년과 조선 후기(17~18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귀갑의 당초문과 귀두의 원형 등 일부 통일신라양식을 모방하였으나, 세부 조각양식으로 보아 조선 초에서 1602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sup>304</sup>

### ⑥ 불영사 봉로대(佛影寺烽爐臺)[일명 불영사 배례석(佛影寺拜禮石)]

이 석재는 의식이 행해질 때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가 탑 또는 석등에 예배를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여 ‘배례석’이라고 하며, 향로를 놓고 향을 피우는 곳이기도 하여 ‘봉로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석재의 크기로 보아 사람이 올라가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향을 피우는 대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동안 ‘불영사 배례석’으로 불리웠다.

불영사 삼층석탑의 앞[남쪽]에 위치하는 봉로대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형태는 평면 장방형[길이 63cm×너비 41cm×현고 15cm]으로 상면 중앙에 활짝 편 이중 6엽의 복판양연화를 양각하였다. 상단 측면에는 갑석모양처럼 1단의 각진 괴임[높이 5.3cm]이 돌려져 있다. 하부는 대강 다듬어서 땅에 묻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노출되었다.

불영사 전 주지 일휴 노스님에 의하면, 이 봉로대는 대웅보전의 축대 아래에 있는 돌거북 앞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불영사 삼층석탑을 이전하면서 그 앞에 옮겨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봉로대는 주로 석탑이나 석등의 앞에 위치하여 향 공양을 위한 향로를 안치하는 곳이므로 이 봉로대도 원래 지금처럼 불영사 삼층석탑의 앞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작시기는 조선 후기(17~18세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연꽃의 문양 양식과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 초의 작품으로 불영사 삼층석탑과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05</sup>

304. 심현용, 2008, 앞 논문, 183쪽

305. 심현용, 2008, 위 논문, 182~183쪽

### ⑦ 청암사지 석등재(靑巖寺址石燈材)

청암사지 석등재는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청암사지[일명 구산리사지]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석등재이다. ‘구산리 석등’으로 알려진 청암사지 석등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전면 남쪽에 위치한다. 청암사지 석등은 간주석 중간 위가 파손되고 없어서 전체적인 형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크기는 지대석 폭 87.5cm×높이 25.5cm, 하대석 폭 70.5cm, 간주 폭 24.6cm이며, 석등의 하대석에서 간주석 상부까지의 현 높이는 77.5cm이다.

청암사지 석등의 하대석은 팔각형으로 하부의 지대석과 한 돌로 되어 있다. 하대석의 윗면은 8판의 단엽을 복연으로 조각하고 그 사이에 단엽을 장식하였으며, 8각형의 간주석 받침을 1단 각출하였다. 간주석은 평면 8각형으로 현재 파손되어 중간부분 이하만 남아 있다. 또 석등 상대석이 유존하는데, 크기는 지름 65.2cm×높이 28cm이다. 하부에 1단의 간주석 받침이 있으며, 간주석을 꽂을 수 있는 사각 홈이 있다.

제작 시기는 파손이 심하여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하대석에 나타나는 연꽃의 양식과 8각 평면 입면체를 유지한 조각수법으로 보아 전형적인 석등양식을 계승한 통일신라 말, 즉 전술한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과 동시기인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06</sup>

### ⑧ 불영사 법고(佛影寺法鼓)

불영사 법고는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에 있는 조선 후기 예불이나 의식에 사용된 불구이다. 북은 아침, 저녁의 예불 때나 수행의 정진을 위해 사용한 불구(佛具)의 하나이다. 『법화경서품(法華經序品)』에 따르면, 번뇌와 망상 또는 집착과 오욕의 마군을 없애는 설법을 할 때 북을 친다고 한다. 북은 고(鼓)·법고(法鼓)·제고(齊鼓) 등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북은 주로 나무로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입힌 후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장식한다.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뉜다.

불영사 법고는 2구가 남아 있다. 하나는 매우 큰 편이고 다른 하나는 작다. 모두 제작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큰 것은 칠성각에 보관되어 있고,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지름 88cm, 폭 105cm이다. 작은 것은 황화실에 보관되어 있고,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지름 43cm, 폭 25cm이다.

큰 법고는 별다른 문양이나 그림 등이 전혀 장식되지 않아 소박하다. 작은 법고는 문양이나 그림을 채색으로 장식하여 화려하다. 불영사 법고는 울진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법고로 불교 법회 의식 용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sup>307</sup> 1978년 2월 24일 동산문화재 제3558호로 지정되었다.

306. 심현용, 2008, 위 논문, 182쪽

307.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법고」,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4일

### ⑨ 불영사 국기 현판(佛影寺國忌懸板)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에 있는 조선 후기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일을 기록한 현판이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기일에는 전국적으로 노래와 춤이 금지되었고, 지방 관료들은 일체 공무를 보지 않았다. 또한 죄인들에게는 형벌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푸줏간에서 도살 행위도 일체 금지되었다. 이날 궁중에서는 국기제(國忌祭)가 거행되었고, 왕의 능침을 참배하는 의식이 실시되었다. 국기제는 예조(禮曹)의 계제사(稽制司)에서 맡아 수행하였다.

불영사 국기 현판의 형태는 크기가 31×119cm인 세장방형이다. 검은색 바탕에 해서체 글씨를 세로로 음각하고 그 안에 흰색을 칠했다. 불영사 국기 현판에는 조선시대 제1대 왕인 태조부터 제17대 왕인 효종에 이르기까지 왕과 왕비의 기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판의 왼쪽 끝부분에 제18대 왕인 현종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 기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판을 제작한 시기의 하한선은 현종이 태계한 후 숙종의 재위 기간인 1674~1720년으로 추정된다.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까지 기록된 불영사 국기 현판으로 볼 때, 불영사는 큰 재산을 하사한 인현왕후와 관련되어 왕실의 원당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패와 국기 등 주로 숙종대부터 왕실과 관련된 자료가 출현하는 점은 이러한 추정에 더욱 신빙성을 높여준다. 불영사 국기 현판은 울진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물로 조선시대에 불영사에서 행한 각종 불교 의식 및 불영사와 조선왕실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sup>308</sup>

박병선

## 제4절 유교

### 1. 교육과 학문 성향

조선은 유교 통치이념을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다. 이러한 체제 변화를 추진하는 토대로 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건국 초부터 농상(農桑)을 장려하고, 흥학(興學)하는

308.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국기 현판」,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4일